

Sulwhasoo

VOL.84 MARCH/APRIL 2018

Sulwhasoo

Sulwhasoo

MARCH/APRIL 2018





꽃칠 브로치 / 박수이
삼베 옷칠 / 2017

봄의 컬러와 기운을 담은 꽃 브로치. 고운 색감의 조화가 어여쁘다. 금박의 꽃술 장식은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당장이라도 사랑살랑한 봄 옷깃에 꽃이 멋들어지게 장식해보고 싶은 마음이 인다. 옷칠 특유의 담백한 기품과 매끈한 광택이 옷차림의 격을 높여준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며, 평면이지만 입체적이고, 회화인 듯하면서도 조각 같은 복합적 아름다움을 품은 옷칠 공예. 박수이 작가는 본래의 질감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던 기존의 옷칠 작업을 벗어나 나무와 삼베의 결을 살린 후 다양한 색감의 옷칠로 마무리하여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옷칠 공예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그가 작업한 옷칠 그릇은 뉴트럴 톤과 간결한 디자인이 만나 현대적인 테이블에서도 잘 어우러지며, 옷칠만이 가진 고유한 미감을 풍부하게 발현한다. 내구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실생활에서 쓰기에도 편리한 박수이 작가의 옷칠 공예품. 전통의 예술이 일상으로 들어오는 흥미로움이 가득하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A flower brooch contains the colors and energy of spring. The harmony of the colors enhances its appearance even more. The gold-plated pistil ornament arouses luxurious atmosphere. Instantly, you can feel an urge to decorate the collar of your spring outfit. The elegant dignity of lacquer and the smooth gloss upgrades the quality of your clothing. Lacquer craft cherishes both traditional and modern beauty, in 2D and 3D, looking as if a work of art. Artist Sui Park presents sensational and trendy lacquer craft items in various colors without hiding the original texture of the wood and the hemp cloth. Traditional lacquering would not reveal such texture. Her lacquer ware combines neutral tones and simple designs that are ideal for modern table settings, while keeping the original aesthetics of lacquering. Sui Park's pieces boast of durability, functionality, and aesthetics, and are convenient to use every day. They are filled with the excitement of appreciating traditional art on a daily basis.

단단한 기본으로 만들어낸 피부 자신감
에센셜 라인

Essential Line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단계별로 영양과 생기를 부여하는 에센셜 라인은 얼굴에 본이 다른 아름다움을 꽃피웁니다.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factors
The Essential Line nourishes and revitalizes the skin step-by-step
to enhance your beauty beyond your expectations.



Sulwhasoo

MARCH/APRIL 2018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귀한 원료를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의 진귀한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설화수.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피부 균형을 다스려주는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한 효능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프랑스까지 전 세계 12개국에 진출, 아시아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offers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treats the skin from within by incorporating modern skin science into legendary ingredients infused with timeless Asian wisdom and presents holistic beauty to restore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The Sulwhasoo brand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pursues beauty reminiscent of nature with precious natural ingredients and delivers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by creating beauty from the inside out. Sulwhasoo globally promote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with the JAUM Balancing Complex™, an optimal blend of five ingredients, carefully selected from more than 3,000 medicinal herbs, Korean ginseng, the legendary ingredient that makes Sulwhasoo's unique formulas even more special, and Sulwhasoo's cutting-edge Bio-conversion Technology™. As of 2018, Sulwhasoo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sian Beauty Creator, operating in 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South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the US, Canada and France.

Sulwhasoo

VOL.84 MARCH/APRIL 2018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봄날처럼 환하고 보드라운 피부를 위해
- 12
피부 섬기기
강인한 생명력이 피워낸 고귀한 아름다움
- 16
新 장인을 만나다
나무의 생채기가 옷칠이 되고 작품이 되다
- 22
공간미감
오후 2시의 미술관
- 28
건너다
생동의 빛을 비추니 영화롭다

발행일: 2018년 3월 2일(통권 제84호)
발행처: 심상배 편집인·이우동
발행처: (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제품 문의: 고객센터(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 가이 미디어 02317-4921 편집: 윤연숙, 민소연 디자인: 조윤희
사진: 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 덕일 인쇄 (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 리 다

- 36
설화인
최고와 최고가 만나 절정을 이룬다
설화수의 새로운 뮤즈, 송혜교
- 44
어우러지다
실용과 예술의 교차, 소반의 미학
- 50
설화풍경
간직하고 싶은 봄날의 풍경
- 54
설화보감
봄나물로 잃었던 입맛이 살아나는구나
- 60
아름다운 기행
지중해의 봄날, 아말피 & 안탈리아
- 66
설화수를 말하다
매화꽃의 아름다운 자태, 피부에 내려앉다
- 72
설화공간
빛나는 2주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오늘과 내일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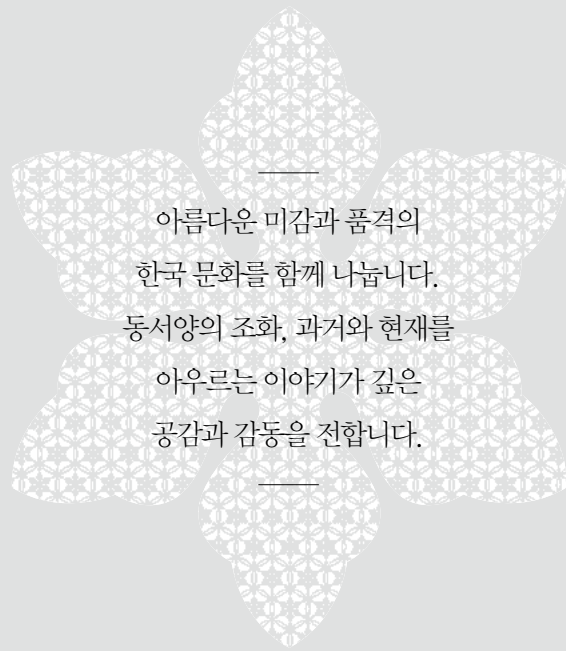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꼭꼭 눌러 담아낸 행운과 다복의 무늬
- 82
한국의 멋
단단하고 견고한 사랑방 세간
- 84
설화애장
소리와 함께하는 삶
- 86
읽다
우리 가락, 경계를 넘어 새로움을 꿈꾸다
- 90
집 안 단장
초록빛 싱그러움으로
- 92
몸 단장
슬쩍 보이도 예쁘다



- 94
문화 즐기기
- 96
프로덕트 맵
- 98
독자 선물



펼
치
다



봄날처럼 환하고 보드라운 피부를 위해 For skin that is as radiant and smooth as a spring days

차가운 무채색으로 가득했던 일상에 연한 풀빛과 생기가 드는 요즘은 피부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이기도 하다. 점점 높아지는 자외선 지수,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공격하는 건조한 공기는 기미나 트러블의 주된 원인이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봄별은 며느리를 썬다고 가을별은 딸을 썬다.'는 옛말이 있다. 비슷하게 '봄별에 그을리면 입도 몰라본다.'는 속담도 있다. 따스한 봄별 아래 별생각 없이 나섰다가 살갗이 타는 불상사는 그 옛날에도 달갑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다. 봄철 자외선으로 생기는 기미나 까칠해진 피부를 다스리는 방법은 없을까?

궁중의 여인들은 기미로 얼굴에 그늘이 지면 살구씨(행인:杏仁)로 얼굴을 밝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살구씨를 곱게 갈아 그 가루에 꿀과 달걀흰자를 섞어 걸쭉한 반죽을 얼굴에 바른 후 표면의 물기가 마르면 깨끗하게 씻어낸다. 잠들기 전 달걀흰자와 살구씨 가루 섞은 것을 바르고 다음 날 아침 씻어내면 기미가 없어진다고도 전한다. 살구씨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주름과 노화를 방지하고 어혈을 풀어주어 얼굴의 그늘이나 잡티를 없애준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한약재인 밀타승(密陀僧:산화납)을 곱게 갈아 우유에 개어 자기 전 바르거나 녹두 가루를 같은 방법으로 발라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달걀식초(초란:醃卵) 역시 기미를 없

As the saying goes, "The spring sunshine is for the daughter-in-law, while the autumn sunshine is for the daughter." Another proverb says, "Even your loved-one won't recognize you if you are tanned by the spring sunshine." It seems that people are reluctant to be tanned by the warm sunshine in the spring. Isn't there any way to refine your skin and protect it from age spots or roughness caused by UV rays in the spring?

In the palace, women used apricot seeds to maintain their skin tone brighter and clearer upon detecting age spots. They mixed finely ground apricot seeds with honey and egg whites to make the rich texture, and applied it on their face. When the mask dried, they rinsed it off with water. Also, they would apply the mixture of egg whites and apricot seeds before going to sleep and rinse it off the next morning to lighten the age spots. Apricot seeds are rich in lycopene to combat wrinkles and aging and allow the blood to circulate properly to remove any darkness or blemishes on the face. According to <Donguibogam>, lead oxide or mung



유기 세숫대야는 죽전도에 못담. 타원형 디저트 매트와 접시 다완은 모두 Area+. 나무 버터 나이프는 김현성 작가 by 아원공방.

에는 오랜 비기로 전해진다. 식초에 달걀을 껍질째 넣고 밀봉한 후 약 1주일 동안 숙성시킨다. 달걀 껍질이 녹으면 얇은 막을 건어내고 남은 식초와 달걀을 잘 섞은 후 냉장 보관하면서 하루에 소주 반 잔 정도 양을 마신다. 또는 흰자만 따로 꺼내어 기미에 직접 바르기도 했다.

봄철 피부 관리에서 말끔한 세안은 고급의 여인에게 모두 우선인 일이다. 비누가 귀했던 그 시절, 옛 여인들은 녹두나 쌀뜨물로 얼굴을 깨끗이 했다. 특히 녹두는 해독작용이 탁월해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환한 안색을 만든다. 녹두 가루는 물과 3:2 비율 정도로 섞어 세안한다. 좀 더 거품이 나길 원한다면 평소 쓰던 클렌징 제품에 녹두 가루를 섞어 써도 편리하다. 가루 입자로 피부를 스크럽한다는 느낌으로 살살 마사지하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낸다.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 1차 세안을 끝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녹두에 풍부한 아미노산과 사포닌 성분은 묵은 각질과 잡티를 제거하고 피부에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준다.

옛 지혜는 피부가 건강을 가늠하는 창문이라 이른다. 외면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면의 건강 역시 잘 다스려야 한다. 환절기 피로엔 맛있는 제철 식재료를 몸을 보하고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챙겨보자. 냉이나 두릅, 씬바귀 등 봄에 나는 나물은 비타민C와 무기질이 풍부해 신진대사를 높이고 피부를 맑게 한다. 봄을 타는 심란한 피부와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봄 자체를 온전히 맞이해 즐길 수 있는 여유일 것이다. S

beans in Korean medicine can also be ground finely and mixed with milk before applying it at bedtime to achieve the same effect. Also, pickled eggs have been a secret regimen against age spots for a long time. Unpeeled eggs can be dipped in vinegar and sealed for maturation for about a week. As the egg shells melt away, the thin layer on top can be removed to allow the remaining vinegar to mix with the eggs. People in old days used to keep this in cold storage and drink about half of a shot glass a day or apply only a white of egg directly on the freckle. For skincare in the spring, thorough cleansing is the top priority of every woman. Since soap was quite rare back then, women cleansed their faces with mung beans or with the water used in washing rice. In particular, mung beans are effective for detoxifying agents, thus removing impurities and brightening one's complexion. Mix three parts mung bean powder with two parts water for cleansing. Gently massage your face to scrub off dead skin cells with the powder particles, and rinse with lukewarm water. If you are wearing makeup, remove makeup first before proceeding. The amino acids and the saponin in the mung beans remove dead skin cells and blemishes, and replenish your skin with nourishment.

In the olden times, wise people believed that the skin is the window to your health. You have to be healthy inside, not just beautiful on the surface. Have sufficient seasonal ingredients to strengthen your body, and engage in regular exercises and enough rest. Spring greens, such as shepherd's purse, new sprouts of exalted angelica trees, and toothed daisy, are rich in Vitamin C and minerals to boost your metabolism and keep your skin clear. However, the best way to keep your skin and mind healthy is to have an open mind to greet and enjoy the spring season.



직사각 트레이와 팔각 굽 접시는 모두 전상우 작가. 단청 한지 천연 비누는 빈컴퍼니. 리넨 키친크로스는 수상한 재봉틀 by 목련상점. 굽 있는 원형 접시는 오선주 작가. 타래버선을 응용한 휴대폰 고리는 정은자 작가 by 갤러리미르. 은칠 다구는 인현식 작가 by 명인명장 한수. 페이스 브러시는 이리스 한트베르크(Iris Hantverk) by 스마일리지.

강인한 생명력이 피워낸 고귀한 아름다움 Precious beauty that powerful vitality bloomed

눈 속에서 꽃을 피워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 혹독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매화의 강인한 생명력을 설화수가 새롭게 선보이는 라인 '설린'에 오롯이 담았다. 매화가 지닌 단아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이 피부에 봄의 찬란한 생기를 불어넣는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봄의 시작과 함께 겨울의 끝을 알리는 매화는 우아한 꽃과 그윽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지극한 아낌을 받아왔다. 특히 매서운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운다 하여 고난과 역경의 극복, 지조와 절개의 표상으로 선비들이 애정하며 강인한 기상을 본받고자 했다. 또한 매화는 눈 설꽃, 꽃 화화, 빼어날 수秀로 이루어진 설화수의 브랜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화수의 상징이기도 하다. 매화의 단단한 생명력과 절정의 아름다움은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이상향과도 닿아 있다. 설화수는 매화가 가진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와 생명력에 주목하여, 피부에 생기와 활기를 주는 원료로 탄생시켰다. 피어나기 직전, 가장 응축된 에너지가 담긴 녹매화 꽃봉오리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직접 수확한 후 설화수만의 노하우를 통해 매화의 성분을 온전히 담아내었다. 매화의 생명력과 항산화 에너지를 담은 설린 라인은 피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생기 넘치는 건강한 피부 바탕으로 가꾸어준다. 더불어 깊은 보습과 탄탄한 탄력감으로 맑고 어려 보이는 피부를 선사한다.

Plum blossoms, which inform the upcoming of spring and the end of winter, have been widely loved since the olden times due to its graceful flowers and rich fragrance. Since they bloom after enduring severe cold, classical scholars admired plum blossoms' powerful spirit to overcome adversities with integrity and faith. Also, plum blossoms are the symbol of Sulwhasoo as the meaning of brand name, Sulwhasoo indicates beautiful snow blossoms. Plum blossoms' rigid vitality and extreme beauty match the ideal beauty that Sulwhasoo pursues. Sulwhasoo has focused on powerful antioxidants and the vitality of plum blossoms and produced as the ingredient, which brings vitality and energy to your skin. The flower buds of the Green plum blossoms with the most condensed energy right before blooming are carefully picked by hand, and are extracted with Sulwhasoo's proprietary know-how. Plum blossoms' vitality and antioxidants protect the skin from the signs of aging, leaving it full of vitality and health. The skin looks clearer and younger with thorough hydration and firm resilience.





설린수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에 향등 열매 성분을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바탕을 가꿔주는 생기베이스 스킨 컨디셔너. 150ml

설린에센스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와 발아오방 종실 성분을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로 가꿔주는 생기탄력 에센스. 50ml

설린크림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에 발아오방 종실과 설화유백단 성분을 담아 외부 유해 요인과 피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는 생기탄력 크림. 50ml

1 유자열매 2 매실 영실 거승자, 해송자, 보과 3 향등 열매유자, 지실

현대 여성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비롯해 과도한 다이어트, 야근, 육아 스트레스 등은 피부에 피로를 누적시킨다. 피부 피로가 쌓이면 노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터. 타고난 좋은 피부는 있지만 관리 안 한 좋은 피부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매일 누적되는 피부의 피로를 풀어주어야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설화수가 새롭게 선보이는 설린 라인인 강인한 매화의 생명력이 응축된 항산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 피로에 의한 피부 노화의 징후를 케어하고 피부 전체에 탄력과 건강한 생기를 더해준다. 피부 자극과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하루 종일 탄탄하고 생기가 있는 피부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설린수는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와 피부 보습을 돕는 향등 열매¹⁾ 성분을 담은 스킨 컨디셔너로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바탕을 가꿔준다. 설린에센스는 매화와 발아오방종실²⁾ 성분을 담아 맑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끈적임 없이 보들보들한 소프트쿠션 텍스처의 설린크림은 매화와 발아오방종실, 설화유백단³⁾ 성분을 함께 담아, 외부 유해 요인과 피부 노화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며, 부드러움과 탄력감을 전달한다. 매화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선사하는 어린 피부, 설화수 설린 라인으로 울봄 피부에 매화꽃처럼 화사한 생기를 가득 담아보자. S

Modern women's unhealthy lifestyles that lead to excess weight loss, exhaustion, and child-rearing stress accumulate fatigue factors in the skin. Your skin will obviously age with fatigue. You may be born with beautiful skin, but you will never last it without skincare. You can only prevent aging when you remove fatigue from your skin. Sulwhasoo's new Bloomstay Vitalizing Line prevents the premature signs of aging the premature signs of aging by antioxidant energy came from condensed vitality of plum blossoms that removes the signs of fatigue, and keep the skin refreshed everyday for resilience and clarity. It prevents skin aggression and loss of moisture, leaving your skin firm and revitalized all day. Bloomstay Vitalizing Water is a skin conditioner that contains plum blossom extract which has anti-oxidant effect and Yuzu which has moisturizing effect to give a smooth, moisturized skin foundation. Bloomstay Vitalizing Serum is formulated with plum blossoms and germinated five fruits and seeds for clarity and radiance. A soft and elastic texture of Bloomstay Vitalizing Cream has put plum blossoms, germinated five fruits and seeds, and yuzu and hardy orange all together to care the external aggressors and signs of aging for smoothness and resilience. Replenish your skin with the radiant vitality of plum blossoms with Sulwhasoo Bloomstay Vitalizing Line for youthful skin through the positive energy of plum blossoms.

**설린 크림
사용법**
How to use
Bloomstay Vitalizing Cream

Step 1

내용물을 적당량을 덜어내 입가-볼, 눈가-이마 부위에 나누어 도포한다.
Dispense an appropriate amount and apply it over the mouth to cheek and eyes to forehead.



Step 2

도포된 부위를 위에서 아래,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꽃매화를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발라준다.
Smooth the applied area evenly from the top to bottom, from the inside to outside as if drawing the flower(plum blossom).



Step 3

눈썹 위, 코 벽, 콧방울 옆, 턱 부위를 손끝으로 3초간 눌러 준 후, 손가락 전체로 얼굴 라인까지 쓸어주어 탄력과 생기가 느껴지는 피부로 만들어준다.
Gently press over the eyebrow, the side of the nose, the rounded part of the nose and a chin with fingertips for 3 seconds. Then, use all fingers to pat the whole face line to make the skin look resilient and vibrant.





나무의 생채기가 옷칠이 되고 작품이 되다

Park Sui

옷 칠 공 예 가 박 수 이

동양화를 그리는 동생과 함께 카페를 겸해 운영하는 그의 이틀리에에 들어서면 옷칠에 대한 기존 상식이 깨진다. 먼저 칠漆의 대상이 단지 나무뿐 아니라 천과 금속에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가 만들어낸 다양한 파스텔 색감에 눈이 밝아진다. 그뿐인가. 손을 가져가 표면을 만지면 매끄러운 거라 생각했던 예상은 깨지고 오돌토돌한 질감이 접촉의 재미를 더한다. 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옷칠의 어떤 매력에 이끌린 것인지 궁금하네요.

옷칠의 특성 그 자체가 전부 매력덩어리였죠. 우선 칠을 하면 도막이 형성돼 광이 나면서 물건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요. 게다가 방수와 방충은 물론 물건의 내구성을 높여 용기의 기능을 배가시키는 것이 옷칠이죠. 그릇의 이가 나가거나 칠의 일부가 벗겨지면 보수도 가능하구요. 이런 전통적 매력과 더불어 안료를 섞어서 발색을 하고, 흙 같은 소재로 질감을 만들어 평면 혹은 입체 형태의 그림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 끌렸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옷칠 방식과 다른 작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넓게 보자면 과정은 전통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소재와 색감을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칠에 직접 만든 여러 안료를 섞어 다양한 테스트를 한 후 색을 만들고, 질감을 내기 위해 접착력이 강한 옷칠과 흙, 칠가루, 자개가루 등 다양한 재료를 개어서 표현하기도 하니까 다르게 보

I wonder what aspect of lacquering appealed to you. All the properties of lacquering were attractive. Firstly, when you lacquer, the plating on the surface starts to glow to enhance the beauty of the object. Lacquering also makes it water-proof and rust-proof, thus improving its durability and the functionality of the container. Additionally, it can be repaired when the vessel is chipped or partially peeled. Along with these traditional charms, you can also mix it with colorants to apply color or add dirt to create texture for 2D or 3D drawings.

Then, is your work different from traditional lacquering?

Not really. Broadly, the process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raditional method, but I get different outcomes by applying various materials and colors. For example, I can mix the lacquer with various colorants to test the colors, and I also mix it with dirt, paint



이는 겁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생산되는 천들은 질감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천들의 다양한 질감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할까 하는 고민의 결과물인 셈이죠. 옷칠은 마감처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옷칠은 특히 재료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옷칠은 나무에서 추출한 천연소재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격이 다소 비싸고 다루기 어려운 단점도 있죠. 우리 옷칠의 맥이 끊긴 게 일제강점기에 값싼 소재가 등장하면서였다고 해요. 구하기도 어렵고 값도 비싼 생칠 대신 키슈 같은 대용 칠이 유행하면서 그리 된 것이죠. 대용 칠은 상온에서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이 용이하고 저가의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지만 전통 방식의 옷칠을 하려면 70퍼센트의 습도와 27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습장(칠장)에서 건조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건조 조건은 기후와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재료도 중요하지만 상도칠 과정에서는 작업 공간에 먼지가 없도록 유지하며 물을 칠을 해야 하고, 붓도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붓을 사용하는데, 인모를 사용한 고가의 붓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powder, mother-of-pearl powder, and other materials to create different textures. Unlike the olden times, there are many types of fabric with different textures. My work is the outcome of my contemplation to display the various textures of fabric for the consumers. Lacquering allows many new attempts to come up with various finishes.

I heard that materials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lacquering. That's right. Lacquer is a natural material extracted from wood with various strengths. But it is rather expensive and hard to handle. Korean lacquer has not been widely used since cheaper materials had been emerged during the time of Japanese Imperial Rule. They used alternative plating, instead of the lacquer which was hard to find and was expensive. Alternative plating can be dried under the room temperature, so it is easier to use to mass-produce low-priced products. Traditional lacquer, on the other hand, requires a meticulous process, as it needs to be dried in a chamber set at 7% humidity and 27°C. You need experience and careful attention as the drying conditions may vary by climate and season. The materials are im-



옷칠은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작품의 구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울러 표지에 실린 작품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림이나 장신구의 경우 민화 같은 작품을 베이스로 해서 스케치를 합니다. 또 저는 주로 자연을 소재로 삼는데, 산에 떨어진 나뭇가지 자체가 소재이자 그 자체로 구상이 되곤 하죠.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 과정이 구상의 시간인 셈이죠. 표지작은 꽃을 소재로 한 것인데, 삼베를 이용해서 제작했어요. 장신구를 제작할 땐 계절도 감안해야 합니다. 가벼운 여름옷에 착용할 브로치 같은 장신구는 소재도 가벼워야 하잖아요. 해서 금속보다는 삼베 같은 천을 선택합니다. 틀에 삼베를 씌우고 칠하기를 여러 번 반복한 뒤, 꽃의 수술을 금으로 장식해서 마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나무뿐 아니라 삼베 같은 천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소재에 따라 다른 기법이 활용되나요?

기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재의 특성에 따라 옷칠이 다르게 구현되는 것이죠. 나무에 칠을 하면 표면에 도막이 형성되는 것이고, 소재가 천이라면 옷칠은 천의 눈매에 칠이 채워지며 다양하고 입체적인 형태의 구현이 가능해지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삼베에 칠을 하

portant, but it is more crucial to keep the workspace free from dust for the top coat as you plate the object. You also use various kinds of brushes, including very expensive brushes made with human hair.

You said lacquering is creative work. Where do you get your inspirations? Also, please explain the piece on the cover. In case of paintings or accessories, I sketch based on folk paintings. I also work mostly with natural materials such as broken branches of the woods. The piece on the cover was inspired by a flower, and it is made with hemp cloth. When you make accessories, you should consider the season. Brooches for thin summer clothing should be also made with lighter materials. So I work with hemp cloth, instead of metal. I cover the frame with hemp cloth, and lacquer it several times. Then, I finish up by coating the pistils with gold.

You said you utilize wood, hemp cloth, and various other materials. Do you use different techniques according to the materials? It is not the matter of methods, but the lacquer creates dif-

는 것은 오래된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전통 기법이 작가에 따라서 조금씩 변용되긴 해요. 저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저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창의성 때문에 금속공예 등 다른 분야의 작가분들이 옷칠에 관심을 갖는가 봅니다.

옷칠 공예품의 경우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하기가 어려운데, 대중화의 길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높은 재료비와 긴 작업 공정이 대중화의 걸림돌인데, 유통 과정의 문제도 커요. 개인적으로는 칠 작업 외에도 나무로 그릇을 깎고 다듬는 작업이나 금속 작업 등을 직접 하려고 노력해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균일한 형태의 목기가 아니어서 각기 형태가 다른 제품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생스럽지만 카페를 겸한 공간에서 전시를 하는 것도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에요. 소비자와의 접촉면을 늘이는 일은 아주 즐거운 경험이지요.

작가로서의 궁극적 목표가 있다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드백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요. 작가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발신하고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좌절하는 건 잘못된 패턴인 것 같아요. 소비자와의 소통에서 비롯된 시너지는 작가에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 최근엔 개인 작업에 치중하고 있지만, 한동안 수업을 통해서 교감을 즐겼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궁극적 목표가 있다기보단 아직까지 작업의 과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 연말에도 해마다 거르지 않았던 페어 참여와 함께 책 출간을 목표하고 있어요. 책 속에 저의 일상과 칠 작업을 하면서 얻었던 체험 등을 녹일 생각인데,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최근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구의 문짝과 보드를 따로 구입해 아트피스가 되게 하는 협업을 진행했는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가구뿐 아니라 부엌이나 벽면을 칠하는 아트월 의뢰까지 늘어서 아무래도 그런 쪽의 작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 같아요. S

ferent surfaces based on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s. If you lacquer wood, the surface is coated. If you work with fabric, the lacquer fills the weaving of the fabric, producing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form. It may be un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but lacquering on the hemp cloth is a traditional method.

Lacquer craft is difficult to consume due to its high price. Is there a way to make it more common? Basically, the high cost of materials and the long process are problems but the distribution process is also problematic. Personally, I try to shape the wooden vessels and work with metal materials in addition to the lacquering process by myself. Each piece is unique since the vessels are not factory-manufactured, though some people prefer that aspect. It is tiresome, but I try to be closer to the public by exhibiting at a gallery with a café. It is a very pleasing experience to interact more with consumers.

What is your ultimate goal as an artist? As I said, it is very important to meet with consumers face-to-face. Consumers' feedback gives me an important clue to the next step I will take. It's not constructive to follow your own instinct, and be disappointed when you are not accepted by the market. Synergies from communication with consumers provide a big boost of energy to artists. Nowadays, I am concentrating on personal work, but I enjoyed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 through different courses for that reason. I don't have an ultimate goal, but I am still enjoying the creative process.

What are your future plans? I am planning to participate in a fair, and publish a book by the end of the year as always. I am interested in interior design nowadays, so I created a collaborative work to come up with an artistic piece of furniture. It was very popular. I was also asked to create art works for kitchens or walls, so I think I am going to spare more time for that for a while.



박수이 작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옷칠을 활용하여, 보다 현대적인 옷칠 작품으로 대중에게 다가서고 있다.



오후 2시의 미술관

Nam-Seoul Museum of Art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마룻바닥에 드리우는 그림자가 서서히 길어지는 시간. 문득 찾아든 평일 오후 두 시의 한가로움에 발걸음을 미술관으로 옮긴다.
오래전 벨기에 영사관으로 쓰였다는 고색창연한 공간은, 지금을 살아가는 예술가와 관람자의 생생한 숨결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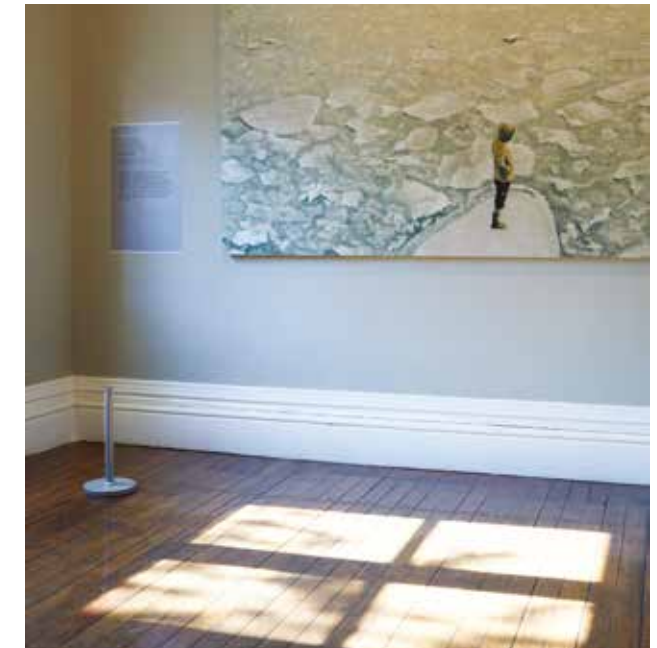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도움 주신 곳 남서울미술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자리 잡은 남서울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이다. 정식 명칭은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고풍스러운 서양 건축 양식의 벽돌 건물은 사당역 근처 혼잡한 주변 풍경에 아랑곳 않고 담담히 서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대한제국기인 1905년에 세워진 이곳은 근대 서양 건축으로서 사적 254호로 지정된 구 벨기에 영사관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중구 회현동에 세워졌으나 1982년 현재 위치로 이전, 복원되었다. 그리고 2004년 서울시립미술관이 분관되면서 비로소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벨기에 영사관이러니, 조금 낯선 느낌이다. 아직도 그렇게 친숙한 나라는 아니니 말이다. 하지만 벨기에는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우리와 인연을 맺었다. 구한말, 태풍 앞의 촛불처럼 국가의 주권이 위태롭던 시절이었다. 고깃덩이를 두고 서로 다투듯 각축을 벌이던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대한제국 정부는 중립국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래서 동반자이자 롤모델로 선택한 또 하나의 중립국이 벨기에다. 당시 벨기에 역시 조선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던 작은 나라였지만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두 나라 간의 연대는 시대가 만든 필연이었다. 구 벨기에 영사관의 가치는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했다.

Namseoul Art Museum, located in Namhyeon-dong Gwanak-gu, Seoul, is an annex to the Seoul Municipal Art Museum. Its official name is 'Seoul Municipal Art Museum Namseoul Annex.' The old-fashioned, Western-style brick building stands independently, oblivious to the crowded atmosphere of Sadang Station. First built in 1905 during the time of the Korean Empire, the building used to be the property of the Belgian Consulate General in Korea, and was registered as Historical Relic No. 254. It was originally located in Hoehyeon-dong, Junggu, but it was transferred to and restored at its current location in 1982. When the Seoul Municipal Art Museum was divided in 2004, it was finally opened to the public.

A Belgian Consulate General property in Ko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doesn't sound right. At the time, we were still not very familiar with Belgium, though we became friends with Belgium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Korea's sovereignty was as helpless as a candle light in front of a storm. The Korean Empire intended to become neutral by building an independent state among the Western powers that were fighting over a piece of meat. Thus, it formed a partnership with Belgium, which was another neutral state. Belgium was also a small country among many Western powers like Joseon, yet it remained independent, making the two countries destined to become allies. The value of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General property in Korea must be judged not just by its beautiful exterior, but also by its historical context. However, the building of the former Belgian Consul-



정문에서 미술관 입구에 이르는 아담한 정원에 들어서면 도시가 발산하는 분주한 공기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 기분이 든다. 정원과 두 개의 석조 기둥을 지나 미술관 문을 연다. 이곳은 1층에 다섯 개, 2층에 여섯 개의 방이 있는데 각 방이 하나의 전시실이 된다.



남서울미술관
가는 길

2호선 사당역에서 내려 5번, 6번 출구로
나오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주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남현동, 서울시립미술관)

전화번호 02-598-6247



상설 전시로 진행 중인 <미술관이 된 구 벨기에 영사관>전에서는 남서울미술관이 거쳐온 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미술관 곳곳 상들리에나 옛 기둥 등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지난날의 공간을 상상하게 한다.

하지만 구 벨기에 영사관은 오랫동안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산산이 해체되어 위치를 옮기는 등의 힘든 시간을 지냈다. 결국 강 이남으로 옮겨오고 미술관이 되면서 비로소 이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많은 이가 주목하고 알게 되었다. 지금 상설 전시로 이어지고 있는 <미술관이 된 구 벨기에 영사관>전에서는 그동안의 스토리를 찬찬히 살펴볼 수 있다. 시간의 흔적이 가득한 오래된 기둥의 부분이나 섬세하게 장식된 낡은 타일 조각들을 바라보며, 과거의 어느 순간들을 상상해본다. 무언가를 열심히 도모하고 계획했던, 불안하지만 분명히 뜨거웠던 시절일 터이다.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남서울미술관은 공간을 만끽하며 혼자 전시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연중 무료로 운영되는 다채롭고 수준 높은 기획 전시로 흥미로운 테마 아래 국내외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뜻밖에 마주친 바스키아와 김환기의 그림은 이 고즈넉한 공간 안에 녹아들 듯 어우러져 있었다. 윤기 나는 마루 위를 천천히 걸으며 예술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있으니 혼잡한 바깥세상의 소리는 멀고 아득한 메아리로 들린다. 온전히 나 자신과 이 장소만 있는 특별한 감각. 한 무리의 학생들이 진지하게 작품을 바라보고 작게 소곤거린다. 무거운 위압보다 자유로운 호기심이 여기의 공기를 채운다. 남서울미술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술 교육 강좌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예술이 피어나는 소담한 정원으로도 그 역할이 기대된다. S

ate General in Korea was not recognized for its historical value for a long time, and was dismantled into pieces until it was relocated to a new site. Its meaning and value barely attracted attention until it was moved to the south of the river and was made into an art museum. The permanent exhibition, <The Former Belgian Consulate General Building in Korea that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Art Museum>, invites you to carefully observe its history. You can imagine a moment in the past while looking at the old columns filled with the traces of time or the old yet elaborately ornamented tiles. It was an unstable yet definitely passionate time, when something was promoted and planned wholeheartedly.

Namseoul Art Museum is a neo-classical structure where one can view visually exquisite exhibitions. There are many quality exhibitions with no admission fees throughout the year, so you can enjoy the diverse works of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for free. I happened to come across the artworks of Basquiat and Hwan Ki Kim that blended so well with this quaint venue. The art pieces were fascinating to look at as I walked slowly around the shiny hardwood floors. The sound of the crowded world outside felt like an echo from a distance. There seems to be a special sense that perceives nothing but me and the space. A group of students can usually be spotted seriously observing the artworks while whispering to one another. Their liberal curiosity fills the air. Namseoul Art Museum also offers art classes and other special class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I cannot wait to see its evolution as a humble garden of local artworks.

생동의 빛을 비추니 영화롭다 Glorious with the light of life

베이징, 상하이와 함께 중국 3대 도시로 꼽히는 광저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도시에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의 설화수 5세대 매장이 들어섰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서 설화수가 가진 한국적인 감성과 홀리스틱 가치를 귀하게 펼쳐 보였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서티스톡





현대적인 감각과 에너지가 넘치는 곳, 광저우

광저우는 중국 광둥성의 성도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중국의 투자 도시이다. 중국 내륙 도시들과는 사뭇 다르게 잘 정돈되고 깔끔한 모습으로 중국 개혁개방의 1번지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광저우의 비전은 미래를 향하고 있지만 도시 한편에는 여러 사원과 모스크, 클래식한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예술과 공예품이 전시된 박물관, 녹음이 풍부한 산과 연못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웨슈 공원 등 풍부한 문화 유산과 자연경관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광저우는 넘치는 에너지와 현대적인 감각을 품고 있는 곳이다. 무역과 금융 및 관광 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어 거대한 쇼핑센터와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다. 특히 랜드마크인 오색 빛 찬란한 외관의 광저우 타워(Canton Tower) 전망대에서는 광저우의 멋진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버블 트램(Bubble Tram)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회전 관람차도 타볼 수 있다. 변화기에 자리 잡은 타이구후이(Taiguhui)는 세계적인 브랜드와 고급 오피스, 호텔 등이 함께 위치한 고급 복합 쇼핑몰로, 지난 12월 설화수가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의 프리스탠딩 스토어를 오픈했다.

전통적인 건축물과 고층빌딩이 어우러진 도시 광저우. 중국 개혁개방의 1번지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Guangzhou, a place filled with modern sentimentality and energy

Guangzhou, the capital of Guangdong Province, is also known as the city of investors in China, making it the center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t is well-organized, open, and clean, unlike most inland cities in China. Guangzhou's vision is to head toward the future, though one corner of the city still preserves many classical structures, including temples and Mosques. There are also many cultural heritages and natural landscapes, including museums exhibiting traditional artworks and crafts and Yuexiu Park where a beautiful view of luxurious forests and a surrounding pond has. Above all, Guangzhou is a city of abundant energy and modern sentimentality. Its trade, finance, and tourism industries have flourished, attracting many gigantic shopping centers and high-rise buildings. In particular, the Canton Tower Observation Deck, which is ornamented with colorful lighting, is a landmark where you can see the mesmerizing view of Guangzhou and ride the world's tallest Ferris wheel called the Bubble Tram. Taiguhui is a high-end shopping complex in the busiest part of the city, featuring world-class brands, luxurious offices, and hotels. Last January, Sulwhasoo opened a free-standing store there with a new design concept.



- ① 광저우 요우이 Guangzhou Youyi
- ② 광저우 중이 Guangzhou Zhongyi
- ③ 광저우 광바이 Guangzhou Guangbai
- ④ 광저우 정자야요우이 Guangzhou Zhengziyayouyi
- ⑤ 광저우 화이샤요우이 Guangzhou Huaishiyouyi
- ⑥ 광저우 타이구후이 Guangzhou Taiguhui



중국 광저우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새로운 콘셉트와 감성으로 광저우를 매료시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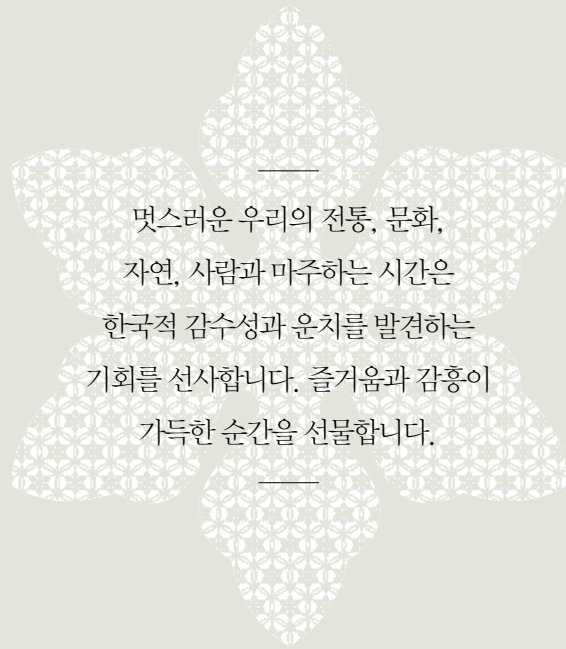
타이구후이 프리스탠딩 스토어는 설화수의 5세대 매장 디자인이 처음으로 적용된 의미 있는 매장으로, 설화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공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동양적인 인테리어 요소로 한국적 아름다움과 감성을 연출함과 동시에, 매화 상들리에와 브랜드 탄생의 근간이 되는 한방 원료를 보여주는 '아시아 위즈덤 존'은 글로벌 고객들이 하늘에서 꽃피운 매화와 땅의 원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을 경험하며 조화와 균형의 브랜드 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광저우 타워에서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홀리데이 행사가 개최되었다. 예로부터 중국에서 소원을 빌며 날리던 '붉은 풍등'을 주제로 한 캠페인 영상과 아가펠라 공연이 펼쳐졌으며, 인기 MC 윈야(温雅)와 유명 영화배우 잉차이얼(应采儿)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약 200여 대의 드론에 붉은 풍등을 매달아 광저우의 밤하늘에 설화수 브랜드 로고와 매화 꽃살을 그려낸 이벤트는 이날 행사의 백미였다.

이번 프리스탠딩 스토어 오픈을 시작으로, 설화수는 중국 신규 도시 진출 및 소비자 공략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도약할 설화수 미의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기길 기원해본다. S

설화수는 광저우 타이구후이 매장에 새로운 5세대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화수만의 미의 가치를 펼쳐 보이고 있다.

Enticed Guangzhou with a new concept and sentiment

The Taiguhui shopping complex is the first, meaningful store where Sulwhasoo's 5th store design has been applied. You can get a sense of Sulwhasoo's original value in every corner. The 'Asian Wisdom Zone,' which showcases Korean beauty and sentiment with oriental interior elements, and features a plum blossom chandelier and the foundation of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allows global customers to experience the place where plum blossoms blooming in the sky and blending with the ingredients of the land, thus signifying the philosophy of harmony and balance. In the evening, there was a holiday event that greets the Chinese New Year at the Canton Tower. Highlights include a campaign video on 'red lanterns' that the Chinese used to make wishes and a cappella show. The event also features popular MC Wen Ya and movie star Ying Choi Yee. The red lanterns are attached to about 200 drones with Sulwhasoo's brand logo and a plum blossom lattice in the night sky of Guangzhou. After opening this free-standing store, Sulwhasoo is planning to expand to new cities in China, and target local consumers. We hope that Sulwhasoo's voyage of beauty beyond Asia touches the hearts of many people.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
미
다

최고와 최고가 만나 절정을 이룬다
설화수의 새로운 뮤즈

The best meets the best and comes to the climax

Song Hye Kyo

송혜교

인류가 꽃에게 관대한 이유는 변화무쌍함과 한결같음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인 듯 제 모습을 드러내지만 사실은 제각각이며, 그 제각각이 하나의 향기를 낸다.
익숙하면서 지루하지 않고, 낯설지만 편안하다. 꽃이 그렇고, 이 아름다운 여인 또한 마찬가지다.

글 이재영 사진 이경렬





송혜교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익숙하지만 지루하지 않다. 그러니 늘 새로운데, 그 새로움이 낯설지 않고 편안하다. 그녀와 함께 작업한 드라마 작가 노희경 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예쁜 가운데 우울하고, 발랄한 가운데 쓸쓸하거나, 순수와 진지가 얼기설기 섞이고, 애달픈 가운데 쿨하고, 뜨거운 가운데 잔인하고, 잔인함과 이지가 뒤섞여 설레게 하거나, 도통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호기심을 멈출 수 없는 배우”라고. 이런 그녀가 설화수의 새로운 뮤즈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배우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신경 쓰는 건 ‘배우’라는 직업에 맞는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설화수라는 브랜드를 생각할 때마다 ‘여배우’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냥 제품이라기보다 고유한 매력으로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미지가 떠올랐죠. 직접 만나보니 더욱 매력적이네요. 역시 변함없이 최고의 브랜드로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는 설화수가 신념이나 생각이 확고한 브랜드이기에 파트너가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한다. 연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또한 배우 자신의 신념이었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며 연기해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나 브랜드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했고,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송혜교가 표현하는 설화수의 모습은 4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3월에 미리 발행되는 이 지면에 자세한 현장 분위기를 전하지는 못하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하지만 그녀의 말만으로도 그 분위기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여정이 새로운 파트너 송혜교와 함께라 더 뜻깊었음은 물론이다. “저는 이런 계

Is this the reason Song Hye Kyo has been so loved for such a long time? She is familiar, but is never boring. So she looks always new, though her newness is not strange, but comfortable. TV series writer Noh Hee Kyung also said so after working with her: “She is pretty yet depressing, bubbly yet lonely, pure yet with a hint of seriousness, agonized yet cool, passionate yet cruel, heart-pounding because of her cruelty and intelligence, and constantly stimulating, something that words are not enough to describe, an actress who always brings out the curiosity upon her.” It may seem obvious that she has become Sulwhasoo’s new muse.

“I always try to appeal new as an actress, but I try harder to stay where I am as an ‘actress.’ Whenever I think of Sulwhasoo, I think of it as an ‘actress.’ It reminds me of an image that is always loved because its original charm goes beyond a mere lineup of products. It’s even more charming in person. There was a reason it has always been loved as the best brand.”

She says it is a pleasure for her to be a partner of Sulwhasoo, as it is a brand with firm beliefs and ideas. She has always thought that her beliefs are the most important, and it represented her beliefs as an actress. “Those, either people or brands, that stand up for their beliefs are never agitated, but remain constant. I always wanted to be one of those people so I can earn other people’s trust.”

Sulwhasoo, as expressed by Song Hye Kyo, will be released in April. It is with deep regret that not much of detailed behind-the-scenes information can be shared in this March issue.

정말 좋아요. 무조건 옛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현재와 조화를 이루는 거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생각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꾸준히 자신만의 신념으로 본래의 나를 지키면서 현재와 어우러져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그녀의 연기도 그랬다.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사랑에 서툰 드라마 PD였다가, 시대를 주름잡은 최고의 여인이기도 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연 많은 여인이었다가, 분쟁지역으로 파견 나간 의사가 되기도 했다. 배역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수많은 역할을 그녀는 '송혜교'가 아닌 송혜교가 만들어낸 '개인'으로 연기했다. 송혜교는 송혜교를 고집하지 않았다. 순순히 그 개인들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 매 순간 그녀는 꽃이 지고 같은 가지에 또 새로운 꽃을 피워냈다. 그 덕에 우리는 때로 준영에게, 오영에게, 미라에게, 다혜에게, 또 모연에게 온 마음을 내어주며 행복했다.

“뻘한 얘기 같지만 순간순간 충실하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실 예전에는 전통이 무거운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통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격식을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전통이 그래야만 할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만이 답이 아니잖아. 전통도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데, 지금 이 순간 함께 숨 쉬고 공감해야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연기도 그렇죠. 어제의 나는 어제의 나니까요. 오늘의 내가 되어야죠. 오늘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나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늘의 송혜교와 오늘의 배역이 조화롭게 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매번 어렵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그녀는 조화로운 삶을 위해 밸런스를 찾게 됐다. 긴 시간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

Fortunately, we can predict the mood a little bit based on what she said. We are ready to deliver to the world our own definition of beauty again. And it is even more meaningful because our partner in such journey is Song Hye Kyo. “This is what I love; not only insisting on the past, but harmonizing it with the present. It’s not as easy as you think. Not everything you imagine can come true. You have to stand by your original beliefs over time to be able to blend with the present. I think this is a critical issue.”

If you look back, this has been her method in acting. She has never been at any one place at the same time. “I know this is a cliché, but I try to do my best in every moment. This is what I have realized over time: now is the most important time. Before, I used to think tradition is just too heavy because many of us are prejudiced by the concept of tradition; that it’s never changing and formal. But why should tradition be this way? I thought one day. Remain unchanged is not the only answer. Tradition exists in this era with us, so shouldn’t it breathe and empathize with us right at this moment? This is also true for acting. What I was yesterday was only yesterday. I have to be the new me today. I breathe with the people who live today, so shouldn’t I show them who I am today? That’s how Song Hye Kyo is today, and today’s character naturally blends into one persona. This is hard each and every time, of course, but I always try to do it in this way.”

She has sought balance in life for some time. She has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so she has



과 삶 속의 균형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이다. 대중과 호흡하는 사람으로 너무 삶에 치우쳐서도, 그렇다고 일에만 치우쳐서 고유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깨달았다. 처음엔 평균대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것처럼 휘청거리거나 치우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과정이 흔들 그네에 앉아 바람을 맞는 것만큼 즐겁다.

균형이라는 건 절대 경직되어서는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온몸에 힘을 잔뜩 준 채 정가운데로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기 십상이다. 힘을 빼고 유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뿐히 내딛는 것 이것이 밸런스를 잡고 걷는 요령.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이제 중심을 잡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정답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었어요. 남이 정해놓은 기준점을 따라가려면 오히려 균형을 잃을 수 있죠. 나와 안 맞으니까요. 기준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만의 밸런스를 찾는 거죠. 각자 자신만의 밸런스를 찾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편안해질 수 있는 균형을 찾아간다면 삶의 조화나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죠. 요즘은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더 많이 웃게 되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런 감정이 얼굴 표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게 모습이 되는 거 같아요.”

자신만의 정답을 찾았다는 그녀는 아름다웠다. 굳이 그 답을 묻지 않았다. 어차피 그것은 송혜교의 기준이므로.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스스로 기준을 세워 균형을 맞추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송혜교. 걸음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유난히 혹독하던 올겨울의 매화는 더욱 아름다웠다. 절정에서 절정을 피워낸 것이다. 송혜교와 설화수.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와 최고의 만남. 매화는 졌지만 이제 또 다른 절정이 시작된다. S

naturally thought of balancing work and private life. She has realized that she should not lean over to her life too much as someone who breathes with the public, but also she should not lose her identity because of work at the same time. She has swayed and lost balance from time to time as if she was standing on a balancing beam, but finding balance is as breezy as sitting on a swing now.

“I thought the answer was far away. But it was in me. I may lose balance when I follow someone else’s standards. It doesn’t fit me. I should find my own standards. My balance is within my standards. I think each person should find their own balance. Even if you undergo many trials and errors, harmony or beauty of life will naturally come to you when you find the balance that makes you comfortable. I can laugh more and think more positively because I try to make myself feel more comfortable. Those emotions naturally reflect to the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I make.”

Her answer made her look even more beautiful. It wasn’t necessary to ask more about her answer. It was her standard. Song Hye Gyo is living today, maintaining balance according to her principles and standards. Her beauty on the outside has come from the inside.

The plum blossoms from the recent severe winter were even more beautiful. The extreme was bloomed by another extreme: Song Hye Gyo and Sulwhasoo. The best and the best that are globally recognized. The plum blossoms have wilted, but the new climax is about to start.



실용과 예술의 교차, 소반의 미학

생김새와 쓰임새, 만든 지역, 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소반. 실용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살림살이의 하나로 오랜 세월 생활필수품이었다. 옛 생활을 이루던 작은 상은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재해석되어 현대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1 옷칠 촛대는 모두 유남권 작가 by 명인명장 한수. 2 전통 소반과 해주반의 기본 형태를 추출하여 아크릴 소재로 재조합한 작품 모두 김캄스튜디오. 3 <일월오봉도> 나주반은 아리지만. 4 백자 면기는 이민수 작가 by LVS CRAFT. 5 도자기 소반은 박정홍 작가 by LVS CRAFT. 6 천연 자개를 꾀어 과묵으로 만든 나전칠기 원형 상은 아리지만. 7 갖의 끈 장식을 모티브로 한 양반 소반은 이정훈 작가 by Yido. 8 손잡이가 포인트인 구리 화병은 임상아 작가 by KCDF갤러리숍. 9 상판에 청화를 그려 넣은 나주반은 박선영 작가 by Yido. 10 블랙 컵과 브라운 머그컵은 감남희 작가 by LVS CRAFT. 11 기와를 모티브로 친환경 플라스틱과 나무를 결합한 보라색 D-SOBAN은 류종대 작가. 12 단창반은 조병주 작가. 13 과묵 호족반은 아리지만. 14 전통 방식으로 만든 옹기 4종은 아우로이 by 일상여백. 15 백자 화병은 전상우 작가.



* 연한 베이지 컬러 페인트는 DEC751 데이드워드 논현점 코티지 워시 컬러의 고강도 기능성 강마루는 구정마루.



왼쪽 페이지 1 거자색 옷칠 트레이는 허명옥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2 과일 단면을 지른 듯한 모양의 접시는 김혜정 작가 by 아원공방. 3 단청반은 조병주 작가. 4 동 드리퍼와 유리 서빙는 김준수 작가 by 아원공방. 5 동 드립 주전자는 아원공방. 6 블루 컬러 상판의 D-SOBAN은 류종대 작가. 7 베이지 컬러 붉은 밥볼 by 목련상점. 8 동과 호박으로 만든 원두 계량컵은 조수진 작가 by 아원공방. 9 청화를 그려 넣은 나주반은 박선영 작가 by Ydo. 10 한식 차림에 어울리는 푸른 색감의 식기류는 모두 이재준 작가. 11 디저트 포크는 강희석 작가 by Areat. 12 리넨 키친크로스는 수상한 재롱 by 목련상점. 오른쪽 페이지 1 배색 원형 쿠션은 OYOY by 목화나무숲. 2 직사각 소반은 플레인오디티. 3 세리믹 주전자와 저그는 모두 전상우 작가. 4 찻잔과 백자 종지는 이세용 작가 by LVS CRAFT. 5 백자 잔은 이재준 작가. 6 꽃잎 모양의 대나무 차 거름망은 목련상점. 7 디저트 접시는 강민경 작가 by Areat. 8 물방울 수저 받침은 박선민 작가 by Areat. 9 실버 스푼은 류연희 작가 by 아원공방. 10 디저트 매트 is Areat.



맛과 멋을 올리다

음식을 담은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고, 운반 기능을 겸한 비교적 작은 상을 소반이라 한다. 온돌이나 마루 등에 앉아서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좌식 생활 방식에서 소반은 유용하면서도 아름다운 생활용품이었다. 오늘날에도 소반은 티 테이블과 다과상 등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유의 간결한 조형미와 형태미로 단아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현대적인 공간에 어우러진 소반의 고아한 멋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함께 존재하기 어려운 상반된 두 가치가 서려 있는 소반. 그래서인지 현대적인 인테리어에도 잘 어우러진다. 침실 협탁이나 허전한 벽을 채우는 벽 장식으로 활용해도 위화감이 없다. 특히 현대적인 소재와 형태로 재해석된 소반은 그대로 두어도 훌륭한 장식 오브제가 된다. 소반이 가진 아름다움이 공간에 운치를 더한다.



왼쪽 페이지 1 모던한 디자인의 데이 베드는 보쿠즈 2 컬러 배색된 베개와 이불은 모두 빈콜렉션 3 패브릭 소재의 조명은 페시 스튜디오 4 화이트 양반 소반은 이정훈 작가 by Yido. 5 테이블 위에 놓인 기하학 모양 촛대와 오브제는 지경주 작가. 6 백자 머그컵은 김보경 작가 by LVS CRAFT. 7 천연 자개를 사용한 용문 홍배 소반은 아리지만.

오른쪽 페이지 1 느티나무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과목 호죽반은 아리지만 2 참죽나무로 만든 <초충도> 나주반은 아리지만 3 진한 컬러감의 해주반은 이종덕 작가 by 일상여백 4 반복적인 선 굵기가 매력적인 단색화 작품은 <Ecriture>로 박서보 작가 by 프린트베이커리 5 연그레이 컬러의 AJ FLOOR 램프는 루이스폴센 by 덴스크 6 면사와 붉은 옷칠의 바구니 오브제는 김옥 작가 7 모던한 디자인의 우드 벤치는 보쿠즈 8 블랙 컬러 원형 소반은 김옥 작가 9 은 차주전자는 아원공방 10 은칠 잔은 인현식 작가 by 명인명장 한수.

간직하고 싶은 봄날의 풍경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여린 꽃잎을 틔우는 봄꽃의 경이로움,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초록의 기운은 그 자체만으로도 치유와 위로가 된다.
저마다의 싱그러움으로 무장한 채 따뜻한 햇살을 벗삼아 다가오는 봄날의 정취에 흠뻑 빠져본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봄의 문턱에서 계절을 누리는 즐거움

나무와 풀, 바위, 물 그리고 꽃과 나비와 함께하는 이화원의 모습에 아직은 쌀쌀한 초봄이지만
이내 몸과 마음이 말랑해진다. 쏟아지는 햇빛을 마주하며 거니는 온실 정원은 맑고 향기로운 초록의 속삭임으로 가득하다.
생명이 움트는 봄날의 심상이 살갑게 다가와 마음을 달뜨게 한다. 봄이 아니고서는 느끼지 못할 즐거움이라.



순하게, 촉촉하게, 싱그러운 봄의 노래

순행클렌징은 피부의 흐름을 도와 부드럽게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안 후에 촉촉함을 더해 맑고 건강한 피부 바탕을 선사한다. 간편하게 메이크업을 클렌징할 때는 산뜻한 사용감의 클렌징워터를, 딥 클렌징이 필요할 때는 클렌징오일을, 데일리 클렌징으로는 클렌징폼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미셀라 워터가 메이크업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는 동시에 피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케어해주는 순행클렌징워터. 200ml(신제품 4월 출시)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맑고 풍요롭다

설화수를 대표하는 에센셜 라인인 피부의 균형을 맞추어 본연의 건강함을 살려준다. 특히 메마른 피부를 안팎으로 보습해 윤택하고 촉촉한 피부로 바꾸어 안티에이징의 기초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 가지 귀한 원료를 최적의 비율로 처방한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윤조에센스 60ml/90ml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충실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해주는 젤 타입 스킨 자음수 125ml 매끄럽게 펴 발리고 말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로션 자음유액 125ml 지선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바꿔주는 탄력 강화 크림. 탄력크림 75ml



봄나물로 잃었던 입맛이 살아나는구나

유달리 추웠던 겨울 날씨 때문이었을까.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성큼 다가왔다. 어김없이 찾아온 봄은 푸르른 기운과 함께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준다. 이럴 때일수록 명숙 기운을 고스란히 담은 제철 봄나물이 최고일 터. 우리 봄나물로 만든 색감 곱고 맛도 일품인 샐러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별미로도 손색 없는
손님상용 샐러드

재료

봄동·돌나물·유채·시금치 각 한 줍씩, 차돌박이 150g, 유자 드레싱(유자액, 식초, 참기름, 후춧가루, 소금)

만드는 법

1 봄동, 돌나물, 유채, 시금치 등을 다듬어 깨끗이 씻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놓는다. 2 차돌박이는 프라이팬에 구워 준비한다. 3 유자액 2큰술, 식초 2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춧가루와 소금 조금을 넣고 유자 드레싱을 만든다. 신맛이 감도는 소스로 밥맛이 더욱 살아난다. 4 접시에 차돌박이와 봄나물을 가지런히 올린 후 유자 드레싱과 함께 낸다.



밥도둑 반찬이지요,
버섯과 함께한 샐러드

재료

새송이버섯 1개, 표고버섯 1개, 두릅 한 줌, 소금, 후춧가루, 식용유,
간장 드레싱(다진 양파, 간장, 식초, 참기름, 물, 설탕)

만드는 법

1 새송이버섯 1개, 표고버섯 1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후,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볶아준다.
2 두릅을 세로로 반 잘라 함께 볶으면서 소금과 후춧가루로 살짝 간을 한다. 3 다진 양파 2큰술,
간장 2큰술, 식초 2큰술, 참기름 1큰술, 물 2큰술, 설탕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준다. 4 접시에 버섯과 두릅을
올린 후 간장 드레싱과 함께 낸다.

가뿐하고 거뜬하게

1일 1샐러드

재료

봄동·섬초·냉이·씀바귀 각 한 줌씩, 자색 무, 미역, 소금,
된장 드레싱(된장, 식초, 물, 맛술, 청주, 설탕, 꿀, 참기름), 볶은 깨

만드는 법

1 소금을 넣고 끓인 물에 깨끗이 씻은 봄동, 섬초, 냉이, 씬바귀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2 씬바귀는
질긴 만큼 다른 나물에 비해 조금 더 끓여준다. 3 된장 소스(된장 80g, 식초 1큰술, 물 3큰술,
맛술 1큰술, 청주 1큰술, 설탕 1/2큰술, 꿀 1큰술, 참기름 1큰술)를 만들어 한 번 끓여준다. 4 데친 후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진 나물에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 자색 무와 미역을 넣는다. 된장 소스와 함께
취향 따라 볶은 깨를 토핑한다.



봄나물 따라, 드레싱 따라

특 쓰는 새콤함이 일품인 유자 드레싱
알싸하게, 매콤하게 고춧가루 드레싱
구수한 듯 깊은 맛 된장 드레싱
짭조름하게 감칠맛 나는 간장 드레싱



입맛 살려주는
매콤새콤달콤 샐러드

재료

달래·더덕·봄동 각 한 줍씩, 고춧가루 드레싱(고춧가루, 다진 마늘, 식초, 참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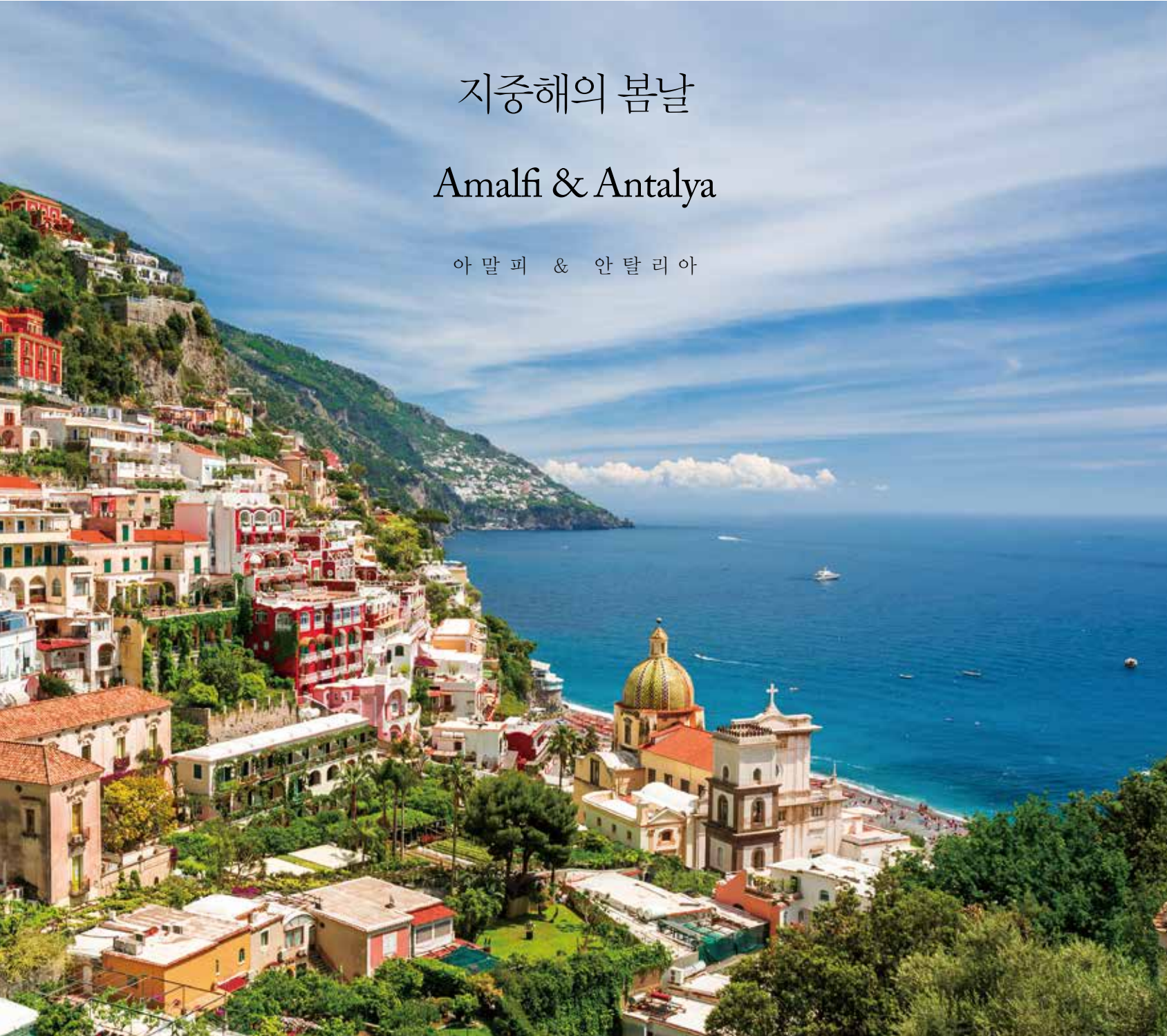
만드는 법

1 달래와 더덕, 봄동은 깨끗이 씻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손으로 뜯어 준비한다. 2 고춧가루, 다진 마늘, 식초, 참기름을 섞어 기본 드레싱을 만든다. 3 물기를 뺀 1의 나물에 드레싱을 붓고 가볍게 무쳐주면 겉절이인 듯 샐러드 같은 한 품 샐러드가 완성된다.

지중해의 봄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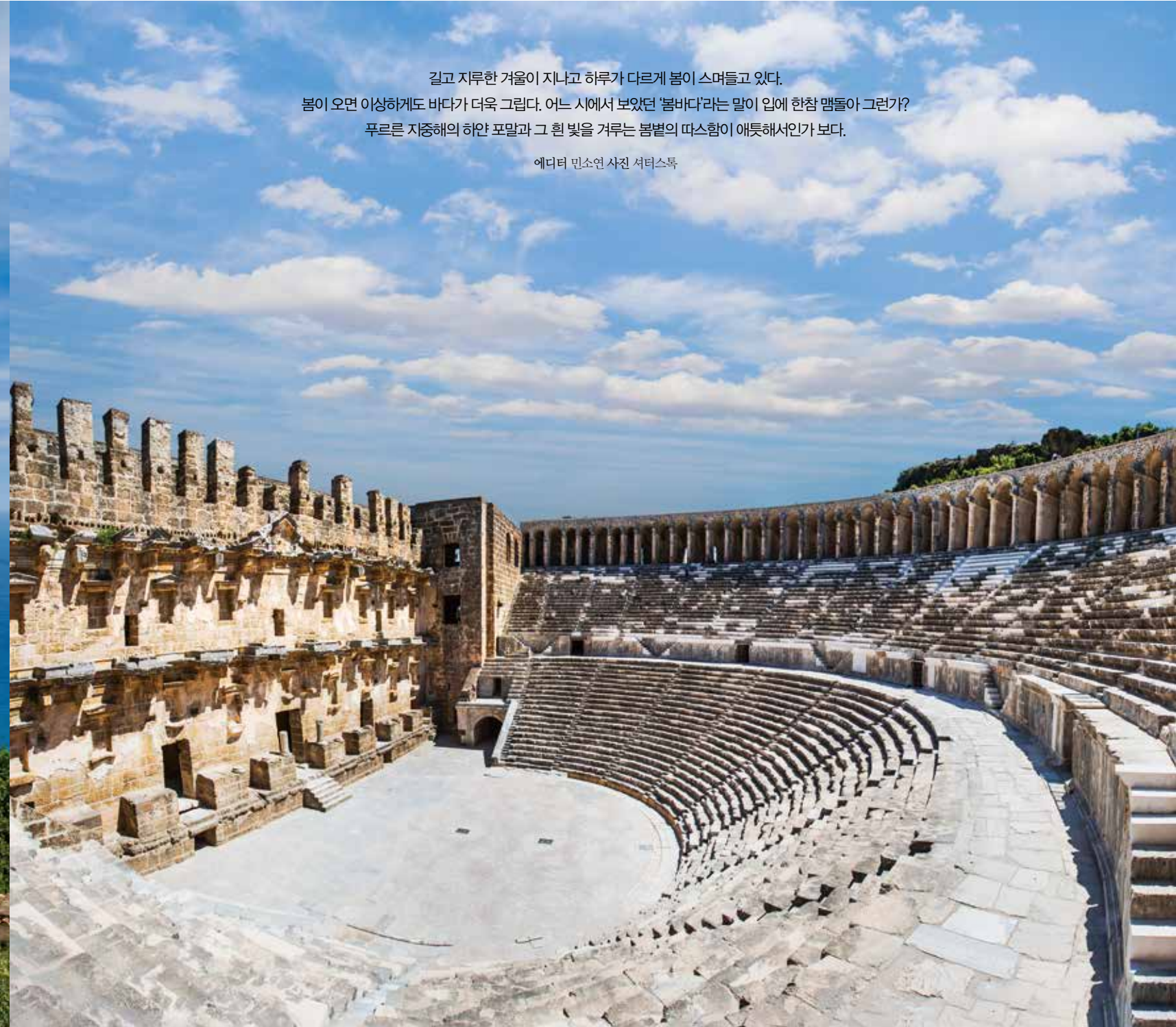
Amalfi & Antalya

아 말 피 & 안 탈 리 아



길고 지루한 겨울이 지나고 하루가 다르게 봄이 스며들고 있다.
봄이 오면 이상하게도 바다가 더욱 그림다. 어느 시에서 보았던 '봄바다'라는 말이 입에 한참 맴돌아 그런가?
푸르른 지중해의 하얀 포말과 그 흰 빛을 거루는 봄별의 따스함이 애뜻해서인가 보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셔터스톡





헤밍웨이나 스타인벡, 로셀리니 등 많은 예술가를 홀린 매력적인 아말피 해변. 시선이 닿는 어느 곳 하나라도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는 풍경이 없어 창작자의 뮤즈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듯하다.

이탈리아 남부 작은 어촌인 아말피는 지도에 표시되지도 않을 만큼 작은 마을이다. 5500명이 채 되지 않는 적은 인구지만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여행자로 늘 북적인다. 소렌토에서 포지타노, 살레르노까지 이어지는 아말피 해안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곳을 죽기 전에 꼭 한 번 가봐야 할 곳 1위로 꼽기도 했다. 이곳으로 오는 길은 결코 편하거나 쉽지 않다. 소렌토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두 시간은 더 가야 하는데, 아찔한 절벽을 따라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달리고 달려 겨우 도착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공포와 긴장이 녹아들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함께 펼쳐진다. 험하고도 아름다운 여정. 비탈진 언덕을 따라 오밀조밀하게 모인 작은 집들과 올리브나무, 파스텔 톤 푸른 바다가 말 그대로 하나의 그림으로 거기에 존재하므로, 극적인 풍경일수록 진부한 표현이 어울린다는 깨달음도 같이 얻는다. 아말피는 그리스 신화 속 헤라클레스가 사랑한 여인의 이름이다. 애인이 죽자 헤라클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그 몸을 쉬게 하려 전 세계를 떠돌았고, 이곳에 다다라 무덤을 만든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상찬받는 아말피는 교역의 중심지로 한때 나폴리보다 더욱 붐비는 도시이자 군사 요충지이기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로마네스크와 두오모 사이를 걸으며 이 지역 특산물인 레몬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한입 베어 문다. 그야말로 봄이 바로 곁이다.

Amalfi is a small fishing town in southern Italy. It is so small that it is rarely marked on maps. It is home to only 5,500 residents, but it is always crowded with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Getting there is never comfortable or easy, though. You have to take a long-distance bus ride from Sorrento, and spend two hours passing over a winding coastal road along the cliffs that can make you feel dizzy. After overcoming the fear and tension of such a commute is breathtakingly beautiful scenery. It's a rough yet pleasant journey. The little houses along the sloped hill, the olive trees, and the pastel-blue sea are a piece of art, literally. You realize that the most dramatic scenery goes well with cliché. Amalfi is the name of the woman whom Hercules loved in Greek Mythology. After she died, Hercules traveled around the world to bury her body at the most beautiful location on earth. Praised as the most beautiful city in the world, Amalfi used to be the center of trade, and it was a military strategic point that was more crowded than Napoli. While walking between the Romanesque and Duomo, which are both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 take a bite off the lemon-flavored ice cream made with a local specialty. Spring is right around the corner.



최고급 현대식 리조트와 로마 시대의 까마득한 역사적 유적이 공존하는 안탈리아. 역사의 변방에서 조용히 사그러든 페르게 시대, 아스펜도스 등의 도시는 폐허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안탈리아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바다를 볼 수 있다?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환경교육재단(FEE)이 선정하는 블루 플래그(Blue Flag: 환경교육, 관리, 수질, 이용 관광객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 최다 선정 지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안탈리아 해안은 정말 가장 깨끗한 바다일지도 모르겠다. 이스탄불에 이어 터키 제2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이곳은 특히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휴양지로 유명하나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적어 한산한 여유를 느낄 수 있다. 해안 절벽과 마리나 항구가 아늑하고 아름다운 안탈리아를 흔히 '지중해를 품은 신들의 휴양지'라 일컫는다. 따스한 지중해 기후 덕분에 1년 중 거의 300여 일 동안 해수욕이 가능하게 따스하다. 안탈리아 중심부의 칼레이치 구시가지 산책은 시간 여행의 기회이기도 하다.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서서 기원전 132년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문'을 통과하며 골목 곳곳에서 로마와 오스만 시대의 다양한 건축 양식을 마주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 무대로 등장하는 올림푸스 산도 그리 멀지 않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이르면 지중해와 가파른 산맥이 이루는 광대한 절경을 마주한다. 또한 고대부터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 신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키메라(Chimera)'를 실제로 보는 신비한 경험도 따라온다. 안탈리아에서의 기쁨은 그뿐 아니다. 자연의 풍부한 혜택 속에서 자란 싱싱한 식재료를 건강하게 즐기는 미식 역시 놓칠 수 없다. S



You can see the most transparent sea in the world in Antalya. Antalya, which is famous for its blue flags (a system for evaluating safety and service for environmental education, management, water quality, and tourism) that were awarded by the global non-profit organization, FEE, may actually have the cleanest sea in the world. Voted as the second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 in Turkey after Istanbul, Antalya is particularly loved by the Europeans, though it is less crowded with tourists unlike other more widely known destinations. Antalya is often referred to as 'the resort of the gods by the Mediterranean' because of its cozy and beautiful coastal cliffs and marina. You can come across many remains of historic civilizations, from the Roman Empire to the Ottoman Empire. It is not very far from Mt. Olympus where the Greek-Roman mythology was born. When you arrive at the top of the mountain via a cable car, you can enjoy the magnificent view of the Mediterranean and the surrounding steep mountain ranges. You can also witness the amazing Chimera, the flame that has been burning since the ancient times, and seems to have been a product of the mythology. That's not all about Antalya. You cannot miss the taste of the fresh and healthy food grown amid such abundance of nature.

작동에 칠보 기법으로 제작한
매화 플레이트는 파란크라프트

매화꽃의 아름다운 자태, 피부에 내려앉았다

매화의 강인한 생명력을 꼭 채워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설린 라인
피부 피로에 따른 노화로부터 피부를 케어하고 젊음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워 보이는 피부를 선사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설린 크림 Bloomstay Vitalizing Cream

매화의 생명력이 응축된 항산화 에너지가 담겨 외부 유해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는 생기탄력 크림. 녹매화 꽃봉오리 성분에 발아오방종실을 더해 피부에 탄탄한 탄력감을 선사하고, 설화유백단 성분으로 오래도록 촉촉함을 유지해 유연한 피부로 가꿔준다. 소프트쿠션 텍스처는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발리고 흡수되어 잔여감 없이 보들보들하고 산뜻한 사용감으로 아침에도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다. 단순히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준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설린에센스 사용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취해 얼굴 인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준다.

설린에센스
Bloomstay Vitalizing Serum

녹매화 꽃봉오리 성분과 발아오방종실 성분이 농축된 에센스가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생기를 더하고 노화의 징후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생기탄력 에센스. 마치 꿀처럼 끈득한 고농축 제형이지만 부드러운 사용감을 선사하며, 보습과 탄력감, 팍 찬 영양감을 전해준다. 피부에 촘촘히 퍼 발려 부드럽고 매끄럽게 마무리되며, 어려 보이는 생기와 활력을 부여해준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설린수 사용 후 적당량을 펴평하여 피부 결을 따라 밀착감 있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퍼 발라준다.

소담한 꽃 모양의 찬기는
클레이사인 by 목련상점

설린수
Bloomstay Vitalizing Water

항산화 성분이 담긴 녹매화 꽃봉오리와 피부 보습을 돕는 향등 열매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를 안정적이고 건강한 컨디션으로 케어해 피부 기능을 활성화하는 생기베이스 스킨컨디셔너. 설린 라인 스킨케어의 필수 베이스 제품으로 에센스와 크림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준다. 농축감과 동시에 가볍게 스며드는 감각적인 텍스처를 담은 제형으로 피부에 유연하게 도포되고 흡수된다. 은은한 설린만의 매화향을 담아 오래도록 편안함을 선사한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윤조에센스 사용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취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퍼 발라주고 가볍게 두드리며 흡수시킨다.

연분홍색 한지 바스켓은 빈컴퍼니,
은과 동 소재에 칠보로 표현한 매화
귀걸이와 목걸이는 파란크라프트.

윤조에센스 매화지향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Plum Blossom

자음단™이 메마른 피부 균형을 맞추어 건강한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인 윤조에센스의 매화지향 에디션.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백매화의 고귀하고 은은한 향을 담아 피부에 활력을 선사한다. 설화수의 스테디셀러인 윤조에센스의 뛰어난 효능에 단아하고 맑은 느낌의 백매화 향이 더해져 피부에는 산뜻하고 촉촉한 자연스러운 윤기를, 지친 몸과 마음에는 매화 향의 생명력 넘치는 긍정 에너지를 부여해준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해 다음 단계 제품의 효과를 높여준다. 손바닥에 2~3회 펴핑한 후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펴 발라준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 흡수시킨다. 설린 라인과 함께 사용했을 때 향의 어우러짐이 뛰어나다.

* 백화점/방문판매/면세점/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한정 수량 판매



면치기한 호리병 모양의 백자 화병은 전상우 작가 석고로 만든 매화문 디퓨저는 빈컴퍼니.



설린 라인 남에게 보이는 모습보다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 내 피부 건강과 직결되는 스킨케어 제품의 선택 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설화수는 원료부터 효능까지 피부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설린 라인을 새롭게 선보이며, 건강한 아름다움의 길로 인도한다.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담고,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고귀한 꽃을 피우는 매화. 설화수는 그 매화가 가진 강인한 생명력이 응축된 항산화 에너지와 매화의 은은하고 그윽한 향을 설린 라인에 담아내었다. 피부를 보필하는 가장 적합한 매화 원료를 정성을 다해 채취하고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온전히 채운 설린 라인은 다양한 피부 노화의 징후를 케어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해 확연히 다른 안티에이징 케어를 가능하게 한다. 갓 피어나는 매화꽃처럼 화사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준다. S

Bloomstay Vitalizing Line In this day and age,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what you truly want and what will keep you satisfied rather than how you are appealed by others. Your criteria for skincare products must be also changed since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your skin's health. Sulwhasoo newly presents the Bloomstay Vitalizing Line to discover a new value for your skin with ingredients and efficacies, guiding you to the healthy path toward beauty. Delicately bloom with the energy of the sky and land after enduring severe cold. Sulwhasoo has captured the condensed antioxidant energy of the plum blossoms' powerful vitality and the subtle fragrance of plum blossoms in its Bloomstay Vitalizing Line. The plum blossoms that replenish your skin are carefully selected, extracting active substances to fill the Bloomstay Vitalizing Line. It cares the various symptoms of skin aging, and delivers healthy energy as a completely new anti-aging solution, leaving your skin as bright and revitalized as freshly bloomed plum blossoms.



빛나는 2주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오늘과 내일 The graceful 2nd anniversary: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2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아시아의 지혜와 철학,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은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더 환한 내일이 기대된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아시아 뷰티의 정수를 오롯이 담아낸 시그니처 공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 2주년을 맞이했다. 랜턴 콘셉트의 독특한 건축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제공해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하와 지상 총 6개 층으로 이루어진 각기 다른 테마의 공간에서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스킨케어와 VIP 라운지, 루프탑 등 특화된 서비스로 설화수 고유의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자음 생크림과 옥 어플리케이터로 활력을 전하는 핸드 리추얼 서비스 홀리스틱 진생&제이드 터치, 섬세한 눈가 피부를 진살아이에센스/크림과 골든 아이케어 마사지로 섬세하게 터치하는 홀리스틱 골든 아이 터치, 자연을 담은 설화수만의 향으로 내면의 깊은 감성을 일깨우는 홀리스틱 센트 터치 등이 있다. 또한 소중한 사람들과 설화수의 특별한 티 컬렉션을 나누는 홀리스틱 티 클래스와 설화수 브랜드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도슨트 투어도 진행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설화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예약가능하다. 한편 오픈 2주년을 기념해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 한복 체험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의 아름다운 내 모습을 사진에 담아 포토 트리 행잉 이벤트에 참여 시 신제품 설린 라인 3종을 체험해볼 수 있는 건본이 제공된다. 또한 구매 가격에 따라 다채로운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다. S

Sulwhasoo Flagship Store, the signature space that represents the essence of Asian beauty, is celebrating its 2nd anniversary. Sulwhasoo Flagship Store is beloved from many consumers since it captures your attention with the unique architecture of lanterns and offers holistic beauty that achieves balance inside and out. Sulwhasoo Flagship Store's signature services include the hand ritual service, 'Holistic Ginseng & Jade Touch' with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and Jade Applicator for revitalization, 'Holistic Golden Eye Touch' with Timetreasure Renovating Eye Serum/Cream and Golden Eye Care Massager for a delicate massage around the eye area; and 'Holistic Scent Touch' with Sulwhasoo's unique fragrance to awaken deep-seated sentiments. You can also enjoy 'Holistic Tea Class' where you can share Sulwhasoo's special tea collection with special people, and the docent tour to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beautiful story of Sulwhasoo brand. These services can be booked in real time on Sulwhasoo brand website. On the other hand, celebrating its 2nd Anniversary, the store will be hosting a traditional Hanbok event that modernly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All customers can have their pictures taken, and receive a sample kit of three items under the new Bloomstay Vitalizing Line upon participating in the photo tree-hanging event. Also, there will be various promotions based on the customers' purchas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2주년을 맞이했다. 홀리스틱 뷰티의 랜드마크로서 설화수만의 가치를 널리 전하고 이어간다.

해사한 봄날처럼, 화사한 봄날의 소식들

건강한 생기와 탄력 가득한 피부를 꿈꾸다

설화수가 항산화 라인인 설린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매화의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 피로에 의한 노화의 사전 징후를 예방하고 피부에 건강한 생기와 탄력을 부여한다. 매화의 생명력을 담은 항산화 에너지에 항등 열매 성분을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바탕을 완성하는 '생기베이스 스킨디셔너' 설린수,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와 발아오방종실 성분으로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생기탄력 에센스'인 설린에센스, 매화의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와 발아오방종실, 설화유백단을 담아, 외부 유해 요인과 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생기탄력 크림'인 설린크림 등 총 3종을 선보인다. 설린수 150ml, 7만5000원대/ 설린에센스 50ml, 14만원대/ 설린크림 50ml, 15만원대(4월 출시)

피부에 활력을 선사하다

설화수는 메마른 피부 균형을 맞추어 건강한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인 윤조에센스의 매화지향 에디션을 출시한다. 설화수의 스테디셀러인 윤조에센스의 뛰어난 효능에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백매화의 고귀하고 은은한 향이 더해져, 피부에는 산뜻하고 촉촉한 자연스러운 윤기를, 지친 몸과 마음에는 매화 향의 생명력 넘치는 긍정 에너지를 부여해 준다. 윤조에센스 매화지향 120ml, 12만원대(백화점/방문판매/면세점/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한정 수량 판매)

산뜻하게 지우고, 촉촉함만 남는다

설화수는 메이크업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는 동시에 피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케어해주는 수분 클렌징워터인 순행클렌징워터를 출시한다. 부평초, 진피, 의이인, 율피 추출물을 복합적으로 처방해 완성한 순행청은수™가 피부의 수분력을 강화해주어 보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워터 제형이지만 클렌징력을 보완하여 포인트 및 베이스 메이크업 클렌징에 최적의 효과를 선사한다. 순행클렌징워터 200ml, 3만8000원대(4월 출시)

장인 정신과 정성의 손길로 완성하다

설화수는 전통 수제 공법으로 정성스레 빚어낸 40일 숙성 프리미엄 한방 비누인 '궁중비누 컬렉션'을 선보인다. 감성을 일깨우는 자연의 향과 한방 포물리가 당김 없이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준다. 응축된 영향을 품은 듯한 한방 향이 활력을 선사하고 항산화 효능의 홍삼 진액을 함유한 궁중비누 홍삼을 비롯해 궁중비누 소나무, 궁중비누 매화, 궁중비누 살구 등 총 4가지를 선보인다. 궁중비누 컬렉션 개당 100g, 각 2만5000원대

자연스러운 곡선이 돋보이는 미인의 눈썹

설화수에서 신규 색조 제품을 출시하여 설화수 생기 메이크업 룩을 완성한다. 부드러운 발색으로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브로 오토셴슬인 '아이브로우 퍼펙터'. 타원 형태의 단단한 펜슬 심은 특별한 스킵이 없어도 누구든 간단하고 빠르게 눈썹을 그릴 수 있으며, 부드럽게 그려지지만 뭉침이 없다. 또 4가지 컬러는 다양한 헤어 컬러에도 원래 내 것처럼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해준다. 아이브로우 퍼펙터 31호 라이트 브라운, 32호 에쉬 브라운, 34호 딥 브라운, 75호 다크 그레이 0.3g, 2만원대(4월 출시)



설화수
雪花秀

Sulwhasoo



순백한 목련의 힘을 담아 맑고 화사한 피부빛을 얻다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단순한 커버가 아닌 피부의 빛을 살릴 때 얼굴은 가장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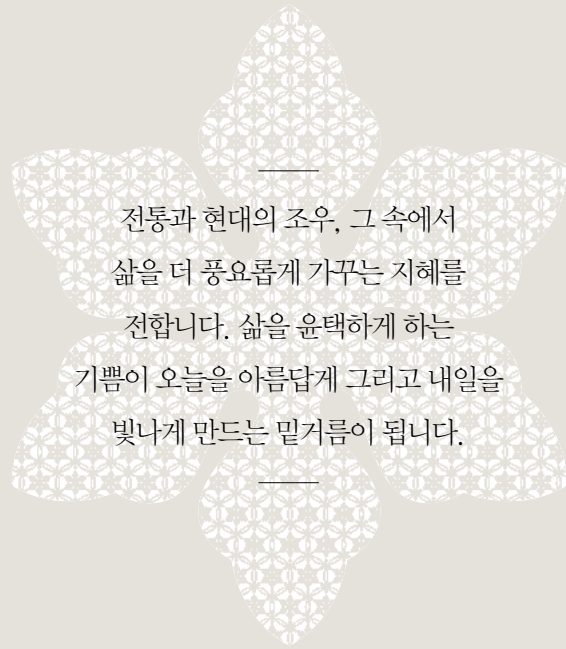
피부 본연의 빛처럼 화사하게 피어나는 피부빛을 완성하는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목련 추출물과 진주모 콤플렉스 성분이 시간이 지나도 티없이 맑고


깨끗하게 빛나는 순백한 빛을 선사합니다

이제, 쿠션 하나로 맑고 화사한 피부빛을 완성하세요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운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
행
가



꼭꼭 눌러 담아낸 행운과 다복의 무늬

다 식 만 들 기

무늬가 새겨진 나무판에 반죽을 넣고 꼭꼭 눌러 예쁜 무늬를 박아 만드는 다식은 귀한 손님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전통 다과다.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예쁜 색깔과 다양한 무늬, 고급스러운 맛은 쉬운 조리법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참고 자료 한식 아카이브

다식은 쌀이나 콩, 밤이나 송화 등의 재료를 가루로 내어 꿀 또는 조청에 반죽해 다식판으로 글자나 기하무늬, 꽃문양 등을 내는 과자로 제사에 반드시 쓰였다. 다식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삼국유사>를 보면 “삼국시대에 찻잎 가루로 다식을 만들어 제사상에 올린 데서 시작되었다. 밀가루를 볶아서 꿀 기름 청주로 반죽하고 이것을 익힐 때 모래를 깔 기왓장에 담아 기왓장으로 뚜껍을 해서 익힌다”고 적혀 있다.

한편 조선 영조 때 이익李翼이 저술한 <성호사설星湖僞說>의 ‘거여밀이조(巨枚蜜餌條: 유밀과에 관한 조항)’에도 다식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차는 본디 물에 달여 마셨다. 그런데 송대宋代에는 찻잎을 찌서 일정한 무늬를 가진 틀에 박아 고압高壓으로 썬내어 다병茶餅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을 말려두었다가 제사 때는 가루로 만들어 사발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서 대나무 술로 휘저어 마신다. 이것이 점다點茶이다. 제사가 끝난 후 이 다식을 물에 부어 젓고 자손들이 나누어

먹는 풍습이 바로 음복인 것이다. 그러던 것이 점차 차 대신에 곡물에 꿀을 섞어서 반죽하여 다병을 만들 듯이 다식판에 박아내어 제수로 쓰게 되었다. 그래서 이름만 다식으로 남아 있고 실물은 바뀌었다”라고 하였다.

즉 다식은 중국의 단차형말차團茶形末茶를 모방하여 우리 식대로 만든 것이다. 다식은 조선시대 제례나 혼례의 큰상차림에서 빼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다.

이렇게 변형된 다식의 모습은 조선 중기 이후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성종 때 사신으로 왔던 명나라의 동월이라는 사신이 쓴 <조선부朝鮮賦>에 의하면 “다식은 밀이나 메밀, 녹두 가루를 꿀에 재워 둥글게 만든다”고 이른다. 또 정약용이 편찬한 <아언각비>에는 “인단印團을 세상에서는 다식이라 말한다. 혹은 울황(栗黃: 밤)을 쓰거나, 송화(松花: 솔꽃)를 가루 내어 쓰는데, 꿀과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목함(木陷: 다식판) 속에 넣어 꽃, 잎, 고기, 나비의 모양으로 박아낸



다 식 만들기

재료 및 도구 노란 콩가루 1/2컵+꿀 2큰술, 청 콩가루 1/2컵+꿀 2큰술, 흑임자 가루 1/2컵+꿀 1큰술, 소금 약간, 다식판
만드는 방법

- 1 노란 콩가루와 청 콩가루를 각각 볼에 넣고 꿀을 넣는다.
- 2 흑임자 가루는 찜기에 20분 정도 찐다.
- 3 콩가루에 꿀 넣은 것을 되직하게 반죽해놓고, 찐 흑임자 가루는 절구에 부어 꿀을 넣고 기름이 나와 윤이 날 때까지 찧어 한 덩이가 되게 반죽한다.
- 4 뭉쳐놓은 반죽은 밤톨만큼씩 떼어 다식판 위에 꼭꼭 눌러 넣는다.
- 5 문양이 찍힌 다식을 조심스럽게 빼내어 완성한다. 색이 서로 다른 다식을 만들 때는 다식판을 깨끗하게 닦고 찍는다.

나나즈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마을 4단지 1층 / 010-2778-1904
 전통 떡, 한과, 앙금플라워 전문의 나나즈미는 유기농 쌀과 설탕 및 엄선된 국내산 재료로 바른 먹거리를 지향하는 떡 공방이다.



것이다"라고 다식을 설명했다.
 한편 다식은 상비약으로도 쓰였다. 흑임자 다식은 식중독이나 토사곽란이 급작스럽게 닳을 때 복용했고 도토리 다식은 기침을 잦아들게 해 '기침막이 떡'이라 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궁중에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 때 다식을 올렸다고 전한다. 이색李穡은 팔관회 때 옷과 다식을 선물로 받아 맛을 보고 그 달콤함을 음미하며 읊은 시를 문집에 실었다.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기부터 다식이 널리 사용됐는데 고려의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아 의례와 연회, 예물 등 세 용도로 쓰였다.
 다식은 대개 반죽을 다식판에 찍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반죽의 재료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쌀 다식은 찹쌀을 찌서 말린 다음 볶아서 고운 가루로 뿜아 소금과 꿀 또는 조청을 넣어서, 셋노란 색이 고운 송화 다식은 오월 초순 소나무에 피는 송화를 말려두었다가 그 가루를 풀이나 조청에 반죽한다. 송화 다식은 궁중의 잔칫상에는 필수 음식으로 올랐고 민가의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밤 다식은 삶은 밤을 속껍질까지 벗겨 곱게 찧은 것에 계핏가루·유자청·꿀 또는 조청을 섞어서, 검은깨 다식은 검은깨를 살짝 볶아서 가루로 내고 기름이 나오도록 오래 찧은 것을 꿀 또는 조청으로 반죽한다. 잡과 다식은 밤 가

루에 대추와 꽃감을 찧은 것을 함께 섞어 다식판에 박아 만든다. 이 밖에도 콩가루·녹말가루·용안육을 이용한 다식이 있다.
 옛 문헌에서는 동물성 재료로 한 독특한 다식도 전한다. 전치, 포육, 광어 등의 재료를 사용한 이 동물성 다식들은 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꿀과 물엿으로 반죽해 만든 것이 특징이다.
 다식은 표면에 壽수·福복·康강·寧영과 같은 길한 글자 또는 卍자 문양·꽃문양 등이 음각된 다식판에 박아 만든다. 과자 하나에도 먹는 이의 건강과 다복을 기원한 옛사람들의 따스함이 느껴진다. 다식판은 나무에 둥근 홈을 파고 그 밑판에 무늬를 새겼다. 길이 30~60센티미터, 너비 5~6센티미터, 두께 2~3센티미터의 크기로 상하 두 쪽으로 나누어진다. 다식을 박을 때에는 상판을 올려 피고 구멍에 반죽을 넣어 꼭 누르면 표면에 여러 모양이 새겨진 둥글납작한 다식이 완성된다. 다식판은 혼례·회갑연·제례 등에 반드시 쓰이는 조과품이었다. 대를 물리면서 사용하고, 때에 따라 주부가 직접 새기기도 한다.
 그 유래에서도 그렇듯 다식은 차와 참 잘 어울리는 간식이다. 그래서 차의 향과 맛을 해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원재료와 꿀(또는 조청)이 조화롭게 어울려 내는 담백하고 건강한 맛은 그 어떤 화려한 서양 디저트보다 매력적이다. S

단단하고 견고한 사랑방 세간 The sturdy furnishings of guest rooms

선비의 공부방이자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인 사랑방은 남자의 공간이었다. 아내의 공간인 인방이 화려하고 섬세하다면 사랑방은 검소하고 묵직하다. 병풍에 목가구 몇 점과 죽자 두어 점, 거문고 한 틀이면 충분했다.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박보미 작가

옛사람들은 사랑 세간을 보고 그 주인의 품격을 가늠했다. 사랑방을 채우는 가구는 주인 되는 선비의 도리, 마음가짐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치를 경계하고 절제의 미덕을 좇는 군자의 정신이 세월이 흐를수록 커져이 쌓여, 소박하고 간결한 가구라도 말할 수 없이 깊은 무게를 가지게 된다.

탁자장은 사방탁자와 서안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랑방 가구다. 수납공간과 진열공간을 겸하는 쓰임새의 장을 뜻하는데 서랍과 장이 혼용된 형태는 문갑장이라 하기도 한다. 대체로 하단이나 중앙 한두 층에 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층의 세 면을 막아 앞면만 뚫는다.

이 탁자장 역시 앞면을 트고 나머지 세 면을 막았으며 가운데 단에 두 개의 서랍장을 설치했다. 하단에는 여닫이문을 달아 장을 만들고, 몸체를 받쳐주는 받침 부분에는 박쥐 날개 모양의 풍혈이 뚫려 있다. 한편 문판 가운데에는 '괘쇠' 무늬가 투각된 둥근 장식 판에 잠금 고리 장치를 달았고 문판과 동자는 제비초리 형태의 격첩으로 연결했다. 광택이 없고 무늬가 화려하지 않은 오동나무 판재를 사용하여 검박하고 탈속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는 사랑방 가구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한편 금속 소재를 탐구하고 재해석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술 가구를 만들고 있는 박보미 작가는 전통 탁자장을 그만의 방식으로 다시 재현했다. 형태와 디테일이 주는 전통적인 느낌과 스틸 소재의 현대적 감각이 개성 있는 아름다움을 빚어낸다. S

In the old times, people judged a homeowner by the quality of the furnishings of his or her guest rooms. The furniture in the guest rooms reflected the integrity and the mindset of a homeowner as well as classical scholar. A cupboard, along with a tea table and a floor desk, was a major piece of furniture in guest rooms. It was used for both storage and display, and could also have drawers and a display unit. Generally, it has one or two levels built for storage, and another level with one side open. This cupboard also has one side open and two drawers in the middle. The bottom part has doors for storage, while the support on the bottom has air holes in the shape of a bat's wings. In the middle of the door panels is a locking ring on a round metal board that is engraved with a unique pattern of Korea. The door panels and the unit are connected through hinges in the shape of a bird's tail. It is made of Paulownia wood with no gloss or elaborate pattern to reflect the humble and unworldly atmosphere of the guest rooms. Artist Bo Mi Park, who concentrates on observing and reinterpreting metal materials to create completely new types of artistic furniture, has reproduced a traditional cupboard she can call her own. The traditional feel of the shape and the detail and the modernity of the materials are molded into a work of beauty with its own uniqueness.



〈탁자장〉 조선시대



〈잔상_탁자장〉 박보미, 2014



안숙선 명창의 무대와 늘 함께하는 부채, 노리개와 가락지. 수십 년을 몸에 지녀왔다. 부채는 감정 표현에서 무대 소도구까지 전천후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소리와 함께하는 삶

안 숙 선 명 창

이모, 외사촌을 따라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어린 꼬마는 결국 최고의 명창이 되었다.
소리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다가가고자 했던, 용기와 열정의 삶이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안숙선 명창을 만난 날은 날이 무척 찼다. 평창 올림픽 관련 공연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중에 만든 귀한 틈이었다. 무대에서 보았던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는 나직하고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같음된다. 단단한 태도에서 나오는 존재감은 자그마한 체구 그 이상의 크기로 다가왔다.

안숙선 명창은 1949년 소리의 고장인 남원에서 태어났다. 국악을 하던 외가 어른들의 영향으로 여덟 살부터 소리를 시작했다. 흥보가, 적벽가,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등을 차례차례 익히고 가야금 산조와 병창을 공부했다. 빛나는 재능은 '아기 명창'이라는 별명의 찬사로 돌아왔다.

"타고난 재능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가르치는 걸 잘 배워서 연습하고... 어릴 적엔 으레 그래야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소리가 삶 속에 녹아 있었거든요. 상여 소리나 자장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소리, 창은 생활과 뗄 수 없는 거였지요."

소리의 참맛을 새삼 알게 된 것은 서른이 넘어서였다.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나 선배들이 하는 다른 공연을 보고 비로소 예술의 세계에 눈이 뜨였다고 선생은 말했다. 아름다웠고 치열했다고.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었다. 소리와 살고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소리를 대하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전통 예술을 계승하는 것은 사명감이 없이는 안 될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지금도 막연한 기분이 들어요. 어디가 끝일까, 때론 성에 차지 않아 갈증이 나지요. 더 깊은 소리를 내고 싶는데 나이가 들어 힘이 부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없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인생의 깊은 맛이 소리에 깃드니까 갈수록 더 좋은 소리가 나겠지요."

선생이 내놓은 애장품은 공연을 할 때 항상 함께하는 세 가지였다. 부채는 소리꾼에게 중요한 소도구로 탁 치거나 펴고 접는 움직임만으로도 수많은 감정을 표현한다. 노리개와 쌍가락지 역시 선생이 무대에 오를 때 늘 지니는 장신구다. 오랜 시간 슬한 공연을 함께했다.

"판소리가 지루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익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속았다 치고 딱 두 번만 공연을 보세요. 시간을 들인 만큼 즐거움이 있는 배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보편적인 삶의 지혜가 소리안에 살아서 움직이지요."

선생은 칠순이 된 지금도 소리를 잘 하고 싶어 매일 한 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제 후진을 위해 밑거름이 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그의 담담한 포부가, 하나의 가락처럼 오래 울렸다. S





넌버벌 퍼포먼스 <썬앤문>은 전통 국악을 기본으로 일렉트로닉, 록,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의 만남이자 홀로그램 영상, 조명쇼 등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디지털 융복합 공연이다.

우리 가락, 경계를 넘어 새로움을 꿈꾸다

'퓨전'이라는 말이 생활 안으로 들어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무언가를 섞어 만든 새로운 결과는, 기존의 재료가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생경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융합, 뒤섞임은 낯은 것을 다른 관점으로 다시 발견하게 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키워미디어그룹

우리 전통이 가진 아름다움이 다시금 발견되고 재평가되면서, 그 가치를 향유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 전통 미감을 계승하고, 그로부터 지금과 맞닿아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려는 노력들이 여러 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음악 역시 예외는 아니다. 퓨전 음악은 오래전에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1969년 재즈에 록 뮤직을 가미한 마일스 데이비스의 록 재즈에서 음악의 퓨전이 이루어진 후, 여러 이질적인 음악 장르들이 규칙이나 편견을 부수고 뒤섞이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팸페라는 글로벌한 사랑을 받으며 대중성을 인정받았고, 재즈와 클래식, 제3세계 음악 등을 접목시킨 여러 크로스오버 뮤직은 저마다 새로운 자극과 야심을 장착하고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고 있다.

국악이 과거 고루하거나 가까이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탈피해 좀 더 친밀해진 데에는 퓨전의 역할이 크다. 현대 팝 음악이나 서양 클래식이

우리 국악과 만나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국악은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낯선 동시에 귀가 편하다. 비트박스과 가야금 연주가 어우러지고 그 가락에 비보이가 신명 나게 춤사위를 펼쳤던 광고의 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면, 이미 퓨전의 매력을 물씬 느껴보았다 할 수 있을 터이다.

넌버벌 국악 퍼포먼스 <썬앤문>은 국악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공연이다. 이미 익숙해진 국악이지만 영상과 조명, 편곡을 통해 새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썬앤문>은 박갈린 예술감독의 연출로 더 큰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25년 동안 무려 70여 편의 뮤지컬을 거치며 음악감독이자 배우, 연출가로 활약했던 박갈린은 이제 장르를 뛰어넘는 공연을 창조하며 대중과 만나고 있다.

국악을 전공한 그녀에게 <썬앤문>은 더욱 각별하다. 오랜 기간 국악 방송 연출 경험으로 국내 내로라하는 명인, 명창과 공연은 많이 해왔



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국악인이 설 무대가 열악하다는 현실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기획한 것이 <썬앤문>이다. 젊은 여성 국악인 열두 명이 모여 국악 그 자체를 즐겁게 들려주는 무대. 여기에 대중을 자극할 새로운 요소를 불어넣었다. 이를테면 발레 음악인 <볼레로>와 살풀이춤이 만나고 오고무가 메탈, 테크노, 팝 등과 만나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공연은 크게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어두운 무대는 반투명한 베일이 드리워져 있는데 흰 안개가 피어오르며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윽고 강렬한 조명이 화려하게 움직이며 형형색색 현란한 일렉트릭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베일과 무대 뒤로 쏟아지는 조명 사이로 두 명의 연주가 등장해 가야금과 아쟁을 연주한다. 경쟁하듯 내달리던 연주는 이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며 공연 첫 무대를 완성한다. 무대는 바뀌어 달빛에 비친 물길 속에서 서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대금과 해금, 장구의 연주가 펼쳐진다. 그 선율에 맞춰 아름다운 몸짓의 춤이 어우러지며 신비롭고 강렬한 달의 이미지가 손에 잡힐 듯 섬세하게 그려진다. 다음은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정원이다. 지구의 생명이 하나 둘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대금의 아름다운 선율이 그 위로 흐른

다. 가야금, 해금, 아쟁, 장구의 음색과 리듬이 절묘하게 더해지며 온갖 생명이 노래하는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이끈다. 무대는 다시 바뀌어 계절의 변화를 알려준다. 스산한 바람이 불고 화려하던 계절의 색깔은 점점 열어져 간다. 낮보다 밤이 길어지는 계절. 밤은 더욱 빨리 오고 잎사귀들은 필러이며 떨어지며 우르릉 소리를 내며 폭풍우가 몰아친다. 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을 소리만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여섯 명의 공연자가 일상적인 물건을 가지고 즉석에서 소리를 만들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영상에 입힌다. 호기심을 끄는 이들의 행동은 서서히 그 목적에 다가가고, 인공적인 개별 소음이 하나의 자연음으로 완성될 때에 이르면 이유 모를 몽클한 감정까지 생겨난다. 이어지는 무대에선 세상 모든 열어진 것들이 바람에 찢겨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바람꽃만이 피어난다는 노래가 해금과 아쟁, 가야금의 연주와 어우러져 흐른다. 그리고 그다음, 바람이 지난 자리에는 흙과 모래만이 남았다. 무대 한가운데에서 무용수의 춤사위가 펼쳐진다. 우리 국악기로 연주되는 라벨(Ravel)의 볼레로(Bolero) 선율에 따라 거의 정지 상태였던 춤의 움직임은 점점 쌓이면서 커지고 거세져 격렬한 살



이번 공연은 박칼린 예술감독이 11대 오디션으로 선발한 여성 국악인 열두 명이 선보이는 난버벌 국악 퍼포먼스 공연이다. 설장고, 오고무와 및 판소리, 타악놀이 등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 무대가 관객의 흥을 돋운다.

풀이로 진화한다. 반복하는 음악 패턴이 어떻게 강력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지 체감하게 한다. 그 뒤 EDM 팝에 맞춘 설장고 연주자의 독무대로 리듬의 향연을 즐긴 다음에는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오고무 공연이 펼쳐진다.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에서 시작된 공연이 뜨거운 태양의 기운에 다다른다. 여섯 명의 공연자가 펼치는 오고무 무대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절제와 열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든다. 타악기가 주는 원초적인 리듬감이 심장을 두드린다. 그야말로 관객과 공연자가 혼연일체가 되는 순간. 우리 전통 악기와 선율이 이렇게 가슴을 흔든 적이 있던가, 자문하게 만드는 피날레였다. <썬앤문>은 국악과 월드뮤직의 퓨전일 뿐 아니라 화려한 조명과 디지털 영상이 융합되어 전혀 새로운 방식의 무대를 선보인다. 국적과 성별, 나이를 초월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흔치 않은 쇼이기도 하다. 정동길 끝자락에 있는 경향아트힐 전용관에서 열린 공연 중이니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찾고 있다면 봄나들이 겸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 것이다. S



초록빛 싱그러움으로

자연에 가장 가까운 그린 컬러 소품으로 집 안 가득 봄의 싱그러움을 담는다. 짙은 그린 컬러는 공간에 힘을 실어주고, 은은한 그린 컬러는 화사함을 선사한다. 따사로운 봄볏과 어우러져 집 안 분위기를 더욱 온화하게 해준다.

에디터 윤연숙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뷰로 드 끌로디아)



인어의 액세서리를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오브젝트 파퓸. 원형 석고와 황동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고에 향료를 뿌려 사용한다. 오반유니온 by 에이치픽스.



비행접시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의 와사비 그린 컬러 PH50 펜던트 조명은 루이스폴센 by 이노메싸.



스웨덴 전통 직조 방식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양면으로 사용 가능한 친환경 핸드메이드 러그는 파펠리나(Pappelina) by 짐블랑.

컬러 소품은 공간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숨은 공신이다. 집 안을 꾸밀 때 어떤 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초록빛 소품은 집 안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는 동시에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선사한다. 집 안에 식물을 두지 않더라도 치유와 휴식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초록색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신장과 간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를 전달한다고 한다.

요즘 자연친화적이면서 내추럴한 집 꾸밈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자연이 우리 선조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장소이자 예술 활동의 원천이었듯, 답답한 도시의 삶 속에 지친 현대인들 역시 점차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기 때문이리라. 쿠션, 커튼, 그릇, 조명을 비롯해 인테리어 장식 소품 등을 그린 컬러로 선택해 밝은 느낌의 공간으로 연출해보자. 옅은 언뜻빛에서부터 짙은 초록빛까지 다채로운 그린 컬러가 생활 속 여유를 선사할 것이다. 보태니컬 패턴을 활용해도 좋다. 싱그러운 초록빛이 기분까지 경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S



미니 백처럼 손에 들거나 어깨에 매는 것이 가능한 웨어러블 블루투스 스피커 헬싱키는 비파 by 다인렘.



'플라워 블로섬'을 모티브로 탄생한 이탈리아 세이 미아케 홈 컬렉션 에메랄드 컬러가 봄의 생명력을 전한다. 이달라.



화이트 컬러의 테이블과 매치하면 상큼하다. 광택감이 느껴지는 알루미늄 프레임의 디자인 체어는 Valerie Objects by 짐블랑.



산과 바다의 만남이 주제인 드로잉 쿠션 생동감 있는 그린과 블루 컬러 드로잉이 즐거움을 선사한다. 예즈킴.



물방울이 떨어져 모여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한 독특한 형태의 트레이는 송범기 작가 작품으로 by 브레이크터임킷.



모들 선반 수납장으로 활용도가 높다. 민트 컬러 옷칠 수납장은 박수이 작가의 에리어플러스 by 에리어플러스.



초록빛 투명함이 더없이 싱그러운 느낌을 선사한다. 반복되는 물의 고리 모양이 특징인 아이노 알토 텀블러는 이달라.



올리브그린 컬러가 편안함을 선사한다. 사이드 테이블로 사용 가능한 캐리어는 노만코펜하겐 by 루밍.



냄비 받침도 이렇게나 상큼할 수 있다. 미움모폴로 이루어진 실리콘 재질의 냄비 받침은 Hay by 이노메싸.

슬쩍 보아도 예쁘다

꽃피는 시절이 돌아왔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봄, 봄나들이와 꽃놀이에 어울리는 파스텔컬러 패션 아이템들을 모아봤다. 만개한 꽃송이처럼, 보드라운 솜사탕처럼, 파스텔 빛깔의 아름다움이 달큰한 향기를 피워낸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뷰로 드 끌로디아)



직접 염색한 실크 천을 사용하며 식물의 다양한 형태를 장신구의 조형적 언어로 표현한 넝쿨 브로치는 박정혜 작가 작품으로 by 명인명장 한수.



소목으로 염색한 명주에 전통자수를 놓아, 꽃과 나비를 형상화해 만든 전통자수 브로치는 이영란 작가 작품으로 by KCDF 갤러리숍.



버섯에서 관찰되는 종식의 이미지를 토대로 형태와 색상을 꽃으로 표현한 폴리머클레이 소재의 목걸이는 김희양 작가 작품.

여성들이 봄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루하던 겨울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봄 시즌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파스텔컬러의 패션 아이템들, 사랑스럽고 여린 컬러가 보는 것만으로도 봄 분위기에 흠뻑 젖어 들게 한다. 하지만 올봄에는 파스텔 톤을 마냥 소녀스럽게 연출하기보다 좀더 트렌디하게 소화해보자. 대표적인 컬러인 핑크. 요즘 핑크는 세련된 숙녀의 컬러로 변화했다. 부드러운 핑크 혹은 말린 장미 꽃잎의 빛 바랜 핑크 컬러처럼 채도가 낮다면 과하지 않고 세련돼 보이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다. 소프트한 블루 컬러는 깨끗한 이미지를 최대화하고 경쾌하고 감각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연한 그린이나 바이올렛 컬러는 포근한 촉감의 니트 소재와 잘 어울린다. 미색에 가깝도록 연한 레몬 컬러는 파스텔컬러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도 쉽게 시도할 수 있다. 파스텔컬러의 의상에는 너무 반짝이는 보석보다는 진주나 깔끔한 스타일의 주얼리를 매치하는 것이 좋다. 파스텔컬러 아이템으로 로맨틱한 봄날을 맞이해보자. 산뜻하고 신선한 분위기를 극대화할 것이다. S



자연은 언제나 영감을 주는 대상. 연분홍 컬러의 커다란 산호초 형태의 실리곤 브로치는 권슬기 작가 작품으로 by 아원공방.



톤 다운된 핑크 컬러가 화사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면 소재로 제작된 웨이스트 밴딩 브이넥 롱 원피스는 어몽.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묶어 사용 가능한 명랑새 목걸이는 이창숙 작가 작품으로 by 국립현대미술관 아트존(서울관).



양증맞은 플랫 칼라가 돋보인다. 스커트는 물론 팬츠에도 잘 어울러지는 버튼 여림이 있는 노랑색 메리노 폴로 셔츠는 ZARA.



핑크와 골드 조합은 언제나 옳다. 중성적인 디테일로 편하게 디자인한 천연 가죽 로퍼는 튜페이스(TUFFS).



한국 전통 보자기를 만드는 감침질과 우리나라 유물에서 볼 수 있는 접기 방식을 접목하여 만든 낭 형태의 기방은 조하나 작가 작품.



볼륨감 있는 부드러운 보드에 고급스러운 트루프 소재가 조화롭다. 베이지 톤 컬러로 어느 의상에도 매치하기 쉬운 프라하 데일리 플랩 토트백은 로사케이.



소매의 스트링을 당겨 원하는 대로 셔링 모양을 잡을 수 있는 스카이블루 컬러의 오버핏 브이넥 티셔츠는 어몽.



천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묘염)으로 제작한 그린 컬러 실크 스카프는 황혜미 작가 작품으로 by KCDF 갤러리숍.



〈Sulwhasoo〉독자 선물

뮤지컬 〈삼총사〉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9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뮤지컬 〈삼총사〉 10주년 기념공연

탄탄한 스토리와 웅장한 음악, 호쾌한 검술 액션 등 작품성과 화려한 볼거리까지 모두 갖춘 뮤지컬 〈삼총사〉가 돌아왔다. 개막 10주년을 맞아 '황금 캐스팅 라인업'으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뮤지컬 〈삼총사〉는 알렉상드르 뒤마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삼총사〉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17세기 프랑스 왕실 총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 달타냥과 전설적인 총사 아토스, 포르투스, 아라미스가 루이 13세를 둘러싼 음모를 밝혀내는 과정을 담은 뮤지컬이다. 2009년 초연 이래 관객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국내를 넘어 일본까지 한국 뮤지컬의 우수성을 전파한 '한류 뮤지컬'의 시초로 불리는 작품. 특히 올해 개막 10주년을 기념해 그간 작품의 장점으로 꼽혀온 조명, 의상 등의 볼거리와 풍성한 음악을 비롯해 작품의 백미라 불리는 검술 액션을 아크로바틱과 결합시켜 한층 화려하고 호쾌한 액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초연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흥행 돌풍을 견인한 신성우, 엄기준, 유준상, 민영기, 김법래 등의 초연 멤버, 일명 '신임유민법'이 완전체로 4년 만에 함께 무대에 올라 기대감을 높인다. 여기에 조순창, 손준호 등 해당 작품을 통해 사랑받았던 배우들을 비롯해 손호영, 서은광(비투비), 린지(피에스타) 등 새롭게 참여하는 배우들이 신선함을 더할 예정이다.

일시 2018년 3월 16일~5월 27일 장소 한전아트센터 문의 02-1577-3363



판소리 '적벽가'의 현대적인 해석, 〈적벽〉

〈삼국지〉의 세 영웅 유비, 관우, 장비와 조조의 전쟁 적벽대전을 담은 판소리 작품 '적벽가'가 창작 판소리극으로 다시 태어났다. 작품의 근간은 중국 이야기지만 한국적 해석을 가미해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적벽〉은 판소리 작품 '적벽가'를 감각적인 판소리 합창과 역동적인 군무로 풀어낸 새로운 창작 판소리극이다. 19명의 배우들이 노래와 춤만으로 치열한 전쟁 적벽의 스토리를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서사로 완벽하게 재현한다. 기존 판소리와는 차이를 두고 작창한 새로운 판소리 합창을 통해 영웅적 인물과 극적인 전개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려냈다. 또 어려운 한자와 음률로 이루어진 소리를 기호화된 동선과 잘 짜인 군무로 역동적으로 표현해 '보이는 소리, 들리는 움직임'이라는 이미지의 공감각화를 시도했다. 특히 공연에 사용되는 '부채'는 적벽대전의 거대한 서사를 함축하고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중요한 도구로 등장한다.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서사를 현대적으로 풀어냄에 탁월한 정호봉 연출과 섬세한 움직임, 세밀한 구성으로 주목받는 김봉순 안무가, 다수의 국악 관현악곡을 작곡한 이경섭 음악감독이 함께했다. 특히 유미리 명창이 작창·소리 지도에 참여해 소리꾼 배우들의 더욱 탄탄한 소리가 만들어졌다.

일시 2018년 3월 15일~4월 15일 장소 정동극장 문의 02-751-1500

뮤지컬 〈닥터 지바고〉



러시아 혁명이라는 방대한 역사를 유리 지바고라는 인물에 녹여낸 감동 대서사시로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뮤지컬 유리 지바고와 라라의 사랑을 노래한 아름답고 서정적인 넘버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한다. 유리 지바고 역에는 류정환과 박은태가 캐스팅됐다. **일시** ~5월 7일까지 **장소** 사롯데씨어터 **문의** 02-1588-5212

연극 〈아마데우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와 그를 질투한 음악가 '살리에리'의 이야기. 연극임에도 20곡이 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사용하는 한편 실제 6인조 오케스트라가 무대 위에 출현해 원곡의 느낌을 살릴 예정이다. 배우 조장석이 모차르트 역을 맡아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일시** ~4월 29일까지 **장소** 광림아트센터 BBCH홀 **문의** 02-1577-3363

콘서트 〈제12회 서울재즈페스티벌 2018〉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뮤직 페스티벌로 우뚝 선 서울재즈페스티벌. 지난 11년 동안 재즈 거장들을 비롯해 재즈계의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가 함께했다. 올해도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무대와 각종 아트워크, 서재페 클래스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전할 예정이다. **일시** 5월 19~20일 **장소** 올림픽공원 BBCH홀 **문의** 02-563-0595

책 〈나를 지키는 힘〉



동서양 철학사에 한 획을 그은 철학자 20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들이 '나'를 찾고, 지키고, 사랑한 방법을 담고 있다. 시대를 리드했던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다. '일단 뭐든' 시작하기에 앞서 '나'를 찾고 '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은이** 임병희 **출판사** 생각정원

전시 〈Paper, Present: 너를 위한 선물〉



아날로그적 소재인 종이 감성적인 매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 순수 예술뿐 아니라 가구, 조명, 제품, 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0팀의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 종이 자체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일시** ~5월 27일까지 **장소** 대림미술관 **문의** 02-720-0667

전시 〈알베르토 자코메티〉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한국 특별전으로 총 10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이 관객을 만난다. 특히 〈걸어가는 사람〉의 석고 원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자코메티의 모델이 됐던 동생 디에고의 흉상과 그 당시 작업하던 사진도 흥미롭다. **일시** ~4월 15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문의** 02-532-4407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클렌징 라인 <div data-bbox="165 284 798 539"> <p>공중비누 홍삼진액의 항산화 효능으로 매끄럽고 생기 있는 피부를 선사하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한방 비누 100g x 2 45,000원대</p> <p>순행클렌징워터 미셀과 워터가 마이크로피부 노폐물을 꼼꼼히 없애는 동시에 피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케어해주는 수분 클렌징워터 200ml 38,000원대</p> <p>순행클렌징오일 신뜻한 사용감이 오일이 얼굴에 부드럽게 물리지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40,000원대</p> <p>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꼼꼼히 없애고 피부의 촉촉함은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35,000원대</p> </div>				에센셜 라인 <div data-bbox="829 284 1436 539"> <p>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90,000원대 90ml 120,000원대</p> <p>윤조마스크 자음단™을 미세한 코튼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집중 밸런스 케어 마스크 5매 60,000원대</p> <p>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57,000원대</p> <p>자음유액 매끄럽게 퍼 발리고 말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63,000원대</p> </div>				스페셜 라인 <div data-bbox="1468 284 2074 539"> <p>윤결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매끄럽고 단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125,000원대</p> <p>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115,000원대</p> <p>탄력크림 자신™이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105,000원대</p> <p>미안피니셔 앞서 바른 성분의 효능은 올리고 피부를 갠서 윤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스킨케어 피니셔 80ml 90,000원대</p> <p>소선보크림 (TP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일리 크림 50ml 150,000원대</p> <p>에소침크림&패치 입가 필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200,000원대</p> <p>탄력네크림 자신™과 5가지 한방 오일로 안전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안티에이징 네크림 60ml 80,000원대</p> <p>명일본초염물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힘을 보충하고 윤택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8주 케어 안티에이징 염물 8ml x 4 200,000원대</p> </div>							
자정 라인 <div data-bbox="165 558 798 833"> <p>자정클렌징폼 백도 성분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 150ml 40,000원대</p> <p>자정닝팩 백상 성분은 딴은 젤 모놀라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버림을 가꾸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80ml 65,000원대</p> <p>자정수 자진 피부를 정돈해 주고 마백 효능을 끌어 올려 주는 젤 타입 브라이트닝 스킨 125ml 65,000원대</p> <p>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히 부드럽게 퍼주는 유분 함유 피부 상태로 가꾸어주는 브라이트닝 스킨 125ml 70,000원대</p> <p>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마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210,000원대</p> <p>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 · 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향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130,000원대</p> <p>자정미백아이에센스 쿨링 지막 아몰라케티드와 젤 텍스처가 눈가 피부를 맑게 가꾸어주는 브라이트닝 아이에센스 15ml 75,000원대</p> <p>자정미백크림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퍼지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50ml 135,000원대</p> </div>				설린 라인 <div data-bbox="1468 558 2074 833"> <p>자정미백마스크 자정 미백이 주입된 마스크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65,000원대</p> <p>상백크림 (SPF 50+ / PA++++) 피부를 보호해 줌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생기베이스 스킨크림 40ml 75,000원대</p> <p>설린수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버림을 가꾸어주는 생기베이스 스킨크림 150ml 75,000원대</p> <p>설린에센스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로 가꾸어주는 생기베이스 에센스 50ml 140,000원대</p> <p>설린크림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로 가꾸어주는 생기베이스 에센스 50ml 150,000원대</p> </div>				자음생/자음진 라인 <div data-bbox="2106 558 3022 833"> <p>자음생 귀하게 얻은 중삼수™가 동일한 수분을 공급해 촉촉한 피부 버림을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80,000원대</p> <p>자음생페이셜오일 귀한 인삼 종자유가 함유된 오일이 피부에 영양 공급을 케어해주는 피마일 오일 20ml 130,000원대</p> <p>자음생에센스 중삼수™가 함유된 인삼 겔수 타입 에센스 35ml 150,000원대 50ml 180,000원대</p> <p>자음생에센스 중삼수™가 함유된 인삼 겔수 타입 에센스 50ml 150,000원대</p> <p>자음생에센스 중삼수™가 함유된 인삼 겔수 타입 에센스 50ml 150,000원대</p> <p>자음생에센스 중삼수™가 함유된 인삼 겔수 타입 에센스 50ml 150,000원대</p> </div>							
자음생 라인 <div data-bbox="165 852 798 1127"> <p>자음생유액 귀하게 얻은 중삼수™가 매끈한 피부에 탄력과 영양을 공급하는 안티에이징 에센스 125ml 90,000원대</p> <p>자음생아이크림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 있고 매끄러운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홍삼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180,000원대</p> <p>자음생크림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신뜻한 질감) 60ml 250,000원대</p> <p>자음생크림 라이트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신뜻한 질감) 60ml 250,000원대</p> <p>자음생마스크 자음생크림의 성분과 더블 랩핑 시트™가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크리미 시트 마스크 5매 120,000원대</p> </div>				수술 라인 <div data-bbox="829 852 1436 1127"> <p>수술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명운함을 주는 수분 진정 미스트 100ml 42,000원대</p> <p>수술크림 시원한 자자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어주는 수분 크림 50ml 90,000원대</p> <p>수술선펠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음선으로 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선펠루이드 50ml 55,000원대</p> </div>				바디 & 헤어 <div data-bbox="1468 852 2074 1127"> <p>동백윤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35,000원대</p> <p>에센셜샴푸 홍화, 고농축 오일, 보습 성분이 머리카락에 윤기를 더해 가꾸어주는 샴푸 보습 밤 15g 40,000원대</p> <p>연섬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80,000원대</p> </div>				진설 라인 <div data-bbox="2106 852 3022 1127"> <p>진설수 적응 성분이 즉각 흡수 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에센스 스킨 125ml 110,000원대</p> <p>진설유액 적응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윤이 있게 가꾸어주는 생기베이스 에센스 125ml 120,000원대</p> <p>진설에센스 적응 성분과 향산화 에너지를 함유한 인삼 겔수 타입 에센스 50ml 330,000원대</p> <p>진설아이에센스 적응 성분과 골도이케어 마시지가 빛나는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0ml 270,000원대</p> <p>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케어하는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270,000원대</p> </div>			
다함설 라인 <div data-bbox="165 1146 798 1460"> <p>진설크림 적응과 송이의 생령력으로 한결 같은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크림 60ml 450,000원대</p> <p>진설클렌징폼 진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거품이 개운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폼 120ml 65,000원대</p> <p>다함설크림 단상과 홍삼이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핵심 토탈 안티에이징 크림 60ml 650,000원대</p> <p>살인팩 옥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팩 80ml 85,000원대</p> <p>여유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52,000원대</p> <p>옥유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피 타입 팩 150ml 42,000원대</p> <p>에올마사지크림 크림과 오일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하게 물리되고 촉촉함과 활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피마일 마사지 크림 120ml 55,000원대</p> <p>리프레싱클렌징폼 천연 파우더 성분과 조일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림 전용 클렌징 150ml 30,000원대</p> <p>본유에센스 주름 탄력, 촉촉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ml 73,000원대</p> </div>				MEN <div data-bbox="829 1146 1436 1460"> <p>본유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52,000원대</p> <p>본유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시 오일 성분과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ml 90,000원대</p> <p>밀렉싱UV프로텍터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40,000원대</p> </div>				쿠션 <div data-bbox="1468 1146 2074 1460"> <p>본유쿠션 11호 포슬렌 핑크 13호 아이보리(핑크) 17호 아이보리(베이지) 21호 내추럴(핑크) 23호 내추럴(베이지) 25호 샌드(핑크) 27호 샌드(베이지) 31호 하얀(핑크) 33호 하얀(베이지) 37호 엠버(베이지)</p> <p>퍼펙팅쿠션 (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기법과 미세한 케어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로 완벽히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케어 윤기 쿠션 15g x 2 65,000원대 (리필 15g 30,000원대)</p> <p>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묵은 추출물이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 x 2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p> <p>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깊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안티에이징 쿠션 15g x 2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p> <p>멀티 쿠션 하이라이터 피부에 생기 물품을 선사하는 펠 베이스 겸 하이라이터 8g 40,000원대</p> <p>파우더 쿠션 피부 위에 공기처럼 섹팅되어 끈적임 없이 케어해주는 산뜻함을 유지시켜주는 파우더 쿠션 8g 40,000원대</p> </div>							
메이크업밸런서 <div data-bbox="165 1479 798 1793"> <p>메이크업밸런서 (SPF 25 / PA++) 유 · 수분 · 피부 힘 · 탄 · 결을 밸런스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60,000원대</p> <p>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60,000원대</p> <p>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 (SPF 25 / PA++) 간신폴로 부드럽게 도포되는 파운데이션 30ml 55,000원대</p> <p>채담 스무딩팩트 (SPF 25 / PA++)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팩트 10g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p> <p>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맑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에센스 EB 30ml 60,000원대</p> <p>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음선과 유분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화이트닝 팩트 9g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p> <p>에서 파운데이션 [리퀴드]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ml 55,000원대</p> <p>에서 스킨케어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p> <p>에서 트윈케이크 (SPF 25 / PA+++) 담뱃담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1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p> </div>				에서 메이크업 <div data-bbox="829 1479 1436 1793"> <p>에서 파우더 섬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꾸어주는 파우더 20g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p> <p>진설 윤파운데이션 3가지 색상을 선택하여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90,000원대</p> <p>진설 윤파운데이션 3가지 색상을 선택하여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90,000원대</p> <p>진설 윤팩트 영원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3.5g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p> <p>에센셜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점까지 한 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5g 40,000원대</p> <p>레이디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핏빛과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60,000원대</p> <p>에센셜 립세럼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점까지 한 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3g 40,000원대</p> <p>아이브로우 내추럴 컬러의 부드러운 핏빛으로 자연스러운 눈썹 연출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 0.3g 20,000원대</p> </div>				립 <div data-bbox="1468 1479 2074 1793"> <p>에센셜 립세럼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점까지 한 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3g 40,000원대</p> <p>레이디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핏빛과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60,000원대</p> <p>에센셜 립세럼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점까지 한 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3g 40,000원대</p> <p>아이브로우 내추럴 컬러의 부드러운 핏빛으로 자연스러운 눈썹 연출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 0.3g 20,000원대</p> </div>				아이브로우 <div data-bbox="2106 1479 3022 1793"> <p>아이브로우 내추럴 컬러의 부드러운 핏빛으로 자연스러운 눈썹 연출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 0.3g 20,000원대</p> </div>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설화수 설링크림(4명)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에 발아오방중실과 설화유백단 성분을 함께 담아, 외부 유해 요인과 피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는 생기탄력 크림입니다.



뮤지컬 <삼총사> 관람권(3명)

개막 10주년을 맞이한 뮤지컬 <삼총사>의 관람권을 3명(1인 2매)께 드립니다. (티켓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8년 4월 15일까지
- 중정 선물 설화수 설링크림, 뮤지컬 <삼총사> 관람권
- 당첨자 발표 5/6월호 독자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8년 1/2월호 독자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 뉴이어 리미티드 에디션(4명)

- 노명희 서울 서초구 잠원동
- 오현정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 황성희 경기 평택시 청북읍
- 황혜현 서울 성동구 매봉길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관람권(3명)

- 임미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 임영희 서울 관악구 은천로
- 채효린 서울 마포구 도화길

2018년 1/2월호 당첨자 선물은 3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Sulwhasoo



환하게 밝힐수록 어려 보이다 늘, 티 없이 해말간 피부로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안색이 밝아지면 당신의 피부는 더욱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빛을 깨워 맑고 환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백삼다당체 성분이 힘을 잃은 피부를 촉촉하게 채우고
 백삼사포닌이 칙칙함을 견어내 밝고 탄탄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자정미백에센스로 티 없이 해말간 피부빛을 찾으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리아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24.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설화지혜(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피부 섬기기(1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新 장인을 만나다(1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공간미감(2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진너다(2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2. 누리다

설화인(3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어우러지다(4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풍경(5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보감(5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아름다운 기행(6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수를 말하다(6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공간(7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한국의 멋(8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애장(8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읽다(8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집 안 단장(9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몸 단장(9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설화수 설린크림 뮤지컬 <삼총사>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3/4월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4월 15일입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엽서 추천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엽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엽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고객님께서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가이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강원도, 충청도**
-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 세이백화점 042-256-0198

- 면세점**
-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 롯데 김포 면세점 02-2669-6730
 -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 신라 면세점 02-2230-3597
 -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 한화 면세점 02-2136-2779
 - 동화 면세점 02-399-3123
 - 삼익 면세점 032-743-0543
 - 에스엘 인천 면세점 032-743-1570
 - 에스엘 면세점 02-2120-6210
 -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 두산타워 면세점 02-3399-9236

